이투데이

ECONOMY TODAY
2021년 6월 4일 금요일
etoday.co.kr

제2652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
BanKIS®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손실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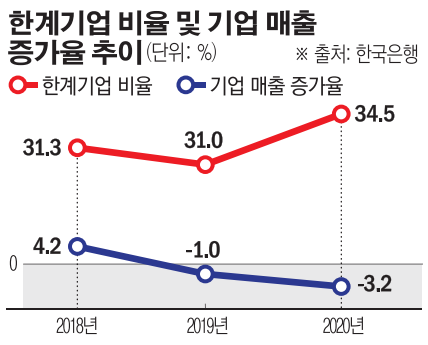
코스피(3일) 3247.43(+23.20P) 코스닥 990.19(+9.09P)
환율(달러당 원화) 1113.60(+0.3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191%(−0.015%P)

7월부터 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4

"매그나칩 매각, 美 규제 대상 안돼" 13

'슈퍼기업' 날개 달때 '좀비기업' 쏟아졌다

이자 못내는 기업 31.0%→34.5%
이자 5배 수익낸 기업 3년來 최대
투톱 빼면 매출 뒷걸음 양극화 심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기업들에 직격탄을 날렸다. 기업 성장성을 엿볼 수 있는 매출액증가율이 역대 최대치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소위 K자형 성장으로 기업 양극화도 더 커졌다.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이자보상배율 100% 미만 기업은 100곳 중 35곳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자의 다섯 배(이자보상배율 500%)를 벌어들인 기업은 41곳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3일 한국은행이 2만6000여 개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 영리법인기업(이하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속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감기업 매출액증가율은 -3.2%로 역대최저치를 보였다. 직전 최저치는 2015년 기록한 -2.4%다.

제조업에서는 유가 하락에 따라 석유정제(-34.3%)와 화학제품(-10.2%)이, 비제조업에서는 무역액 감소와 항공 여객 및 화물수송이 줄어들어 도소매업(-1.9%)과 운수창고업(-8.3%)이 부진했다. 반면, 반도체(5.6%)와 컴퓨터(57.2%) 수출액(무역협회 기준)이 늘어난 전자·영상·통신장비(7.5%)는 비대면 등으로 수요가 증가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장비 수출 증가로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18.3%)도 상승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5.1%를 기록했다. 이는 1000원어치를 팔면 51원을 남겼다는 의미다. 2019년엔 4.8%에 그쳐 5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었다. 전자·영상·통신장비(9.0%)와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12.6%)이 매출액 증가로 영업이익률이 개선된 데다, 유가하락 등에 따른 연료비 감소로 전기가스업(5.6%)도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기업 성장성과 수익성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의존도는 커진 모습이다. 이 두 기업을 빼면 매출액증가율과 매출액영업이익률은 각각 -3.8%와 4.6%이기 때문이다.

벌어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엿볼 수 있는 이자보상비율은 367.6%에서 391.5%로 늘었다. 다만 양극화는 심화했다. 영업적자기업을 포함해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은 34.5%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직전 최고치는 2018년 31.3%였다. 반면, 무차익 기업을 포함한 500% 이상 기업은 41.1%로 2017년(43.7%) 이후 가장 많았다.

김대진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업종별 실적이 갈렸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정제, 화학이 좋지 못했던 반면, 비대면 수요에 정보통신업은 좋았다. 좋은 기업은 좋고 나쁜 기업은 나쁜 소위 K자형 성장이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남현 금융전문기자 kimnh21c@

김부겸(왼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 국무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앞서 경제 5개 단체장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 김 총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경제단체장 "李사면 시급" 김부겸 "상생 길 찾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사면을 건의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단체장들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 이에 김 총리는 "사회의 간극을 좁히고 코로나19 이후 회복에서 기업인과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경제단체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건의를 올린 바 있다"며 "세계 반도체 시장 동향을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위가 깨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하루빨리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반도체에서 주도권을 뺏길 수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빨리 현장에 복귀했으면 좋겠다는 다급한 심정으로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2면에 계속 김대영 기자 kdy@

기아, 59년 만에 세계 판매 5000만대

'614만대' 스포티지가 견인, 해외판매 전체 70% 차지

기아가 글로벌 누적 판매 5000만 대를 돌파했다.

3일 기아는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1424만581대, 해외판매 3587만9531대 등 세계 시장에서 총 5012만112대를 판매하며 5000만 대 판매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1962년 우리나라 최초 삼륜차 'K-360'을 출시한 이후 59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기아는 2003년 글로벌 판매 1000만 대를 달성했고, 2010년 2000만 대, 2014년 3000만 대, 2017년 4000만 대에 이어, 4년 만에 5000만 대 고지에 올라섰다.

수출 및 해외 현지 판매가 전체 판매 비중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브랜드 성장을 견인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탄탄한 제품군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6년 연속 연간 50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달성했다.

국내에서는 기아의 대표 스테디셀러인 쏘렌토와 카니발이 올해 매달 6000대 이상 꾸준하게 팔리고 있으며, 새로운 세단 모델 K8은 사전계약 대수가 연간 판매목표 8만 대의 30%인 2만4000여 대로 판매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EV6도 사전예약이 3만 대를 넘는 등 친환경차까지 차종별로 고른 인기를 보여 작년에 기록했던 국내시장 최대 판매 기록 55만2400대를 경신할 것으로 점쳐진다.

해외 시장은 기아 최초로 글로벌 누적 판매 600만 대를 돌파한 스포티지를 대표로 쏘렌토, 카니발 등 RV 차종이 판매를 이끌었다.

텔루라이드는 2019년 3월 미국에서 출시한 이후 18만 대 이상 판매됐고, 셀토스는 2019년 8월 인도시장에서 판매된 이후 17만 대 이상이 팔려 기아 인도 판매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모델별로는 준중형 SUV 스포티지가 614만 대라는 압도적인 판매량으로 역대 1위를 차지했다.

기아는 글로벌 누적 판매 5000만 대 달성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기아 전시장을 방문한 고객들이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삼성 에어컨, 씨마크호텔 숙박권,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 등 경품을 제공한다. 김준형 기자 junior@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대통령 앞에서 작아진 與 초선, 부동산·조국은 없었다

'더민초' 의원 68명 靑 간담회
文 "내부 단합 통해 외연 확장"
'쓴소리 전달할 것' 기대와 달리
만남 3분의1은 기념사진 찍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을 만나 남은 임기 국정운영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쓴소리가 나올 것이라던 기대와는 달리 "대통령이 듣기 불편한 이야기는 별로 없었다"고 청와대가 공식 발표할 만큼 맥 빠진 간담회였다는 평가다.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된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 시간을 뺀 의원들의 토론시간은 30여 분에 그쳤고, 문 대통령과 참석자 개개인의 기념사진 촬영에 30여 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의원 68명과 차담회를 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가치를 가진 진보가 이를 구현하는 정책뿐 아니라 내부 단합을 통해 외연을 확장할 때 지지가 만들어진다"며 "그 지지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 말을 끝으로 더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나 부동산 정책 실패 등 민감한 현안에 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며,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정부는 퇴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초선들이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지지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손을 맞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초선들이 단합해 지지층 결집에 동참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나도 초선 출신이라는 면에서 동지의식을 느낀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인권·평등·복지·남북협력·환경·생태·생명 등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혁신 DNA를 가지고 있는,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당이라는 측면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한몸'이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의 '단결' 요청에 화답이라도 하듯 더민초 의원들은 덕담 수준의 의견 개진으로 일관했다. 68명의 참가가 중 발언에 나선 사람도 10여 명에 불과했다.

청와대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전 장관 사태 관련 민심이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이나 발언은 없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간담회 과정에서 조 전 장관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고영인 의원은 초선을 대표해 문 대통령이 초선 간담회 요청에 대해 보고받자마자 일체의 망설임 없이 바로 수락한 것과 한미 정상회담의 큰 성과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을 초래한 만큼 재난지원금과 전 국민 고용보험 손실보상제에 비상한 조치와 함께 보다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개별 의원 발언에서는 양이원영 의원이 기후위기 속에서 향후 석탄발전소 7개가 건설 계획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 분야를 더욱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천준호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문제와 관련해 보다 과감한 조직 분리와 인적 쇄신, 원가 공개, 값싸고 질 좋은 아파트 공급 등을 건의한 것이 전부였다. 양이 의원은 "초선 의원들이 1시간 넘게 말했는데 (대통령께서) 다 일일이 답하시진 못했다. 마무리로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하자고 했는데 조금 허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야권은 '쓴소리 없는 반쪽짜리 일방통행 간담회'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의욕이 큰 초선의원들이기에 국민의 애끓는 목소리를 대통령께 과감히 전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68명의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교언영색하기 급급했다"면서 "그래서 오늘 68명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목소리는 그나마 쓴소리를 했던 송영길 대표 한 명의 목소리보다 작을 지경"이라고 혹평했다.

정일환 기자 whan@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손경식 "세계 반도체 시장 엄중"… 김 총리 "대통령께 전달"

경제단체장 "이재용 사면 시급"

▶1면서 계속

김 총리는 사면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제가 검토하는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께) 전달은 해드려야 하고 경제계 지도자들이 건의한 것 중 상당 부분을 정리해 보고드려야 한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자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경제단체장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방향에 관한 협력과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경제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혼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경제인의 또 다른 파트너인 노동자들에 관한 부분에서도 그분들의 귀한 말씀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코로나19 충격을 벗어나고 있다면서도 "회원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수 업종은 상당수 적자 운영 중이고 고용과 실업률 지표도 아직 부진하다"며 "미래를 위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경제단체, 기업, 정부, 민간, 학계 모두 고민해볼 때"라고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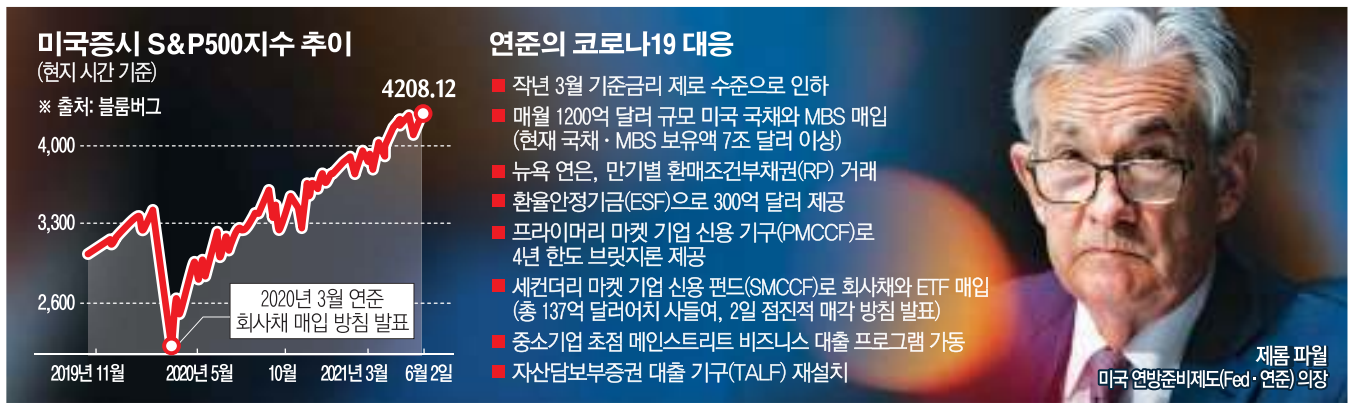
손경식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ESG 경영 등 경제계 현안을 폭넓게 언급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무협) 회장은 지난달 수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45% 증가했다면서도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물류난 심화로 이중고를 겪는 중"이라며 "기업들의 물류비용 경감을 위해 지난해 말 일몰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도 다시 신설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학과처럼 산업계와 대학이 협업하는 교육과정 증설 등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에 시급한 현안으로 △납품단가 변동제 도입 △현장 인력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을 제시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은 중견 제조업체 80% 이상이 소부장 업체인 점을 고려해 공급망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주문했다.

美연준, 회사채 매각 착수 '출구전략' 신호탄

더 가팔라진 경제 회복 속도에
ETF 등 연말까지 점진적 매각
내부서도 '테이퍼링' 언급 늘어
"통화정책과 관련 없다" 선그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일(현지시간)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에서 사들였던 주요 회사채와 상장지수펀드(ETF)를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기점으로 사실상 양적완화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 출구전략에 신호탄을 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CNN에 따르면 연준은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기간 '세컨더리 마켓 기업 신용 펀드(SMCCF)'를 통해 사들인 회사채와 ETF 매각을 점진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시장의 기능을 회복하고 고용주의 신용을 지원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연준은 올해 말까지 점진적이고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사채 매각을 진행할 방침이다.

연준은 지난해 3월 발표했던 SMCCF를 통해 약 52억1000만 달러의 회사채와 85억6000만 달러 규모의 ETF 등 총 137억 달러(약 15조 원)어치를 사들여 기업들을 지원해왔다. 연준이 사들인 회사채로는 가전업체 월풀과 월마트, 비자 등이 포함돼 있다. 당시 팬데믹 여파로 주식시장은 물론 회사채 시장이 출렁이자 연준이 직접적인 개입에 나섰다. 회사채 가격이 급락(금리 상승)하게 되면 기업 자금 조달 상황이 악화하고 더 나아가 금융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다만 회사채 매입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스티븐 므누신이 연준의 비상대출 프로그램 연장을 거부하면서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중단된 상태였다.

CNN은 "연준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매입 중단에서 한발 더 나아가 회사채 매각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준은 이날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다소 빨라지고 있다는 경기 인식을 보여줬다. 보고서는 "미국 경제가 4월 초부터 5월 말 사이 완만하게 성장했는데, 이전 보고서의 조사 기간에 비해 다소 더 빠른 속도로 확장됐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지속적인 공급망 문제와 구인난으로 기업들이 수요를 맞추기 어려워진 것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번 보고서는 15~16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때 기초 자료로 쓰인다.

연준의 회사채 보유 규모는 7조 달러가 훌쩍 넘는 국채·모기지담보부증권(MBS) 보유 규모에 비하면 매우 미약하다는 점에서 이번 방침이 테이퍼링(점진적 자산매입 축소)을 시사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시장이 연준의 테이퍼링 논의 가능성을 주시하는 민감한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어서 출구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기에 충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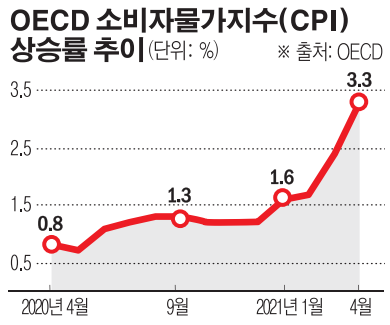
연준은 지난해 팬데믹 이후 월 1200억 달러의 채권을 매입하는 양적완화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미국 경제의 반등이 가팔라지면서 최근 연준 내부에서도 테이퍼링을 언급하는 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이러한 관측에 힘이 실린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연준이 테이퍼링을 갑자기 하는 것은 아니다"며 "적어도 테이퍼링에 대해 생각은 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우려를 의식한 듯 연준 대변인은 "SMCCF의 회사채 등 자산 매입은 이미 작년 말 종료됐다. 이번 매각은 통화정책과 관련이 없으며 관련 신호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연준은 통화정책과 이날 방침의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그 행간의 의미를 읽기는 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팬데믹 머니發 '인플레 경고등'

소비자물가지수 3.3% 상승
글로벌 금융위기 후 최대폭
물가급등 과소평가 우려도



전 세계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미국을 필두로 시장에 공급된 유동성이 글로벌 경제 회복세와 맞물리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다.

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평균은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 경제에 막대한 충격을 줬던 2008년 10월 이후 최대폭 상승이다. 3월의 2.4%보다 0.9%포인트 급등했다.

최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여파가 결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 역시 3월 1.8%에서 4월 2.4%로 오름세를 보였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3월 2.6%에서 4.2%로 크게 뛰었고, 같은 기간 캐나다는 2.2%에서 3.4%로 가속화했다. 유럽에서는 영국이 1.6%, 독일은 2%, 프랑스는 1.2%를 각각 기록했다. 한국은 2.3%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들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의 60%를 넘게 차지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요국 각종 부양책과 백신 접종 확대 등에 힘입어 글로벌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발생했다는 점에서는 전문가들의 이견은 없다.

그러나 물가 상승이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현상인지, 지속적인 추세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크게 엇갈리고 있다.

OECD는 "향후 수개월 동안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았던 시기와 비교되며 CPI 상승 현상이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올해 연말에는 물가 상승세가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이어질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최근 발표된 5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CPI 상승률은 2%를 기록해 '2% 근접'으로 정해져 있는 유럽중앙은행(ECB)의 물가목표치를 넘어섰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는 시장 참여자들이 인플레이션 급등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물가급등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핑크 CEO는 도이체방크가 주최한 온라인 행사에서 "대부분 사람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물가가 하락하는 흐름만 목격했기 때문에 물가 급등은 꽤 큰 충격이 될 것"이라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이 정책을 재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준이 긴축 모드에 돌입하게 될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정부 지출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재정 부양책을 펼치는데, 동시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당신의 평범한 오늘을 지킵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韓 노동법 처벌 수위 높아, 국제 수준 맞게 바꿔야”

나라별 근로시간 규제 위반에 대한 벌칙 비교

*벌금 적용 환율은 2020년 평균환율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징역	2년	없음	6개월	1년 (고의반복시)	2년 (시정명령위반시)	없음
벌금/과태료	2000만 원	없음	30만엔 (305만 원)	3만유로 (4061만 원)	판결로 정함	750유로/ 1인(102만 원)

한경연, G5 노동법 비교

임금·부당노동 등 모두 징역형 노조의 사용자 압박 수단 전락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노동법 처벌 규정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3일 한국과 G5(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국가의 노동관계법 처벌 규정을 비교한 결과 한국 처벌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위반 벌칙의 경우 한국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반면 미국은 벌칙 규정이 없다. 프랑스는 벌금만 부과한다. 독일과 영국에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징역을 부과한다.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경연은 이들 국가의 경우 일감이 몰려도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연근로시간제가 잘 정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비교하면 한국은 최대 6개월로 프랑스(3년), 일본(1년), 독일(1년), 영국(1년)보다 2배 이상 짧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최저임금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프랑스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근로자 1명당 벌금 1500유로를 부과한다.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일본에서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영국은 최대 2만 파운드 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의로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독일은 과태료를 최대 50만 유로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미국은 최저임금을 의도적으로 위반할 때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위반에 대한 벌칙 수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자체가 없다. 미국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구금하거나 벌금을 부과한다. 같은 상황에서 일본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경연은 G5 국가 중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미국의 경우 노사 양측을 규제한다면서 사용자 측만 규제하는 한국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노조가 사용자 측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부당노동행위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접수사건 1450건 가운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건은 5.9%인 86건에 그쳤다.

산업안전 규정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산업안전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은 2년 이하 징역, 미국과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을 부과한다. 독일, 프랑스는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할 때만 징역 1년을 부과하고 있다.

김대영 기자 kdy@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부동산 관련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호텔 리모델링 청년주택인 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3기 신도시 연내 사전청약 2000호 추가”

7월부터 실수요자 대출 완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금년분(3만 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높은 기대를 반영해 연내 사전청약물량을 2000호 추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기발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 내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지자체 제안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 추가발굴 작업에도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임대차 신고제 추진상황 점검/대응 △부동산정책 보완 후속 조치 추진 △2·4 대책 등 주택공급대책 진행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5월 27일 당정 사전협의를 거쳐 발표된 부동산정책 보완책 관련 가능한 한 신속히 후속 조치를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등록사업자 제도개편은 시장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종부세·양도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며 “이는 임대차 거래정보의 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거래 편의 및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차 신고내용이 과세정보로 활용돼 세 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축적된 임대차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최근 무주택자, 실수요자, 주거취약계층 등 중심으로 일부 세제나 대출상의 부담 완화 등은 탄력성을 갖고 보완 중이나 주택공급 일관 추진, 다주택자/단기거래자 투기억제, 맞춤형 실지원이라는 정책골격은 결코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설정된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선(기본공제는 6억 원)을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바꾸고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코레일-SR 고속철도 통합 필요”

김병조 교수 ‘철도 발전’ 발표 코레일, 일반철도에서 적자 통합 운영으로 시너지 내야

한국철도(코레일)와 SR로 이원화돼 있는 철도 운영이 불완전한 경쟁구조로 비효율만 양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의 통합을 통한 경영혁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병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3일 대한산업공학회와 한국경영과학회가 공동 주최한 ‘2021년도 춘계 공동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구조개혁 15년 성과와 발전방향’을 발표한다.

김 교수는 우선 코레일은 구조 개혁을 통해 매년 적자 폭을 줄이며 2014~2016년 흑자를 달성했으나 2016년 말 SR 출범으로 인해 2017년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며 수익성 악화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코레일 영업 적자는 고속철도가 아닌 일반철도에서 발생한다”며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고비용 구조의 일반 철도운행의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나, 공익적 기능을 위해 적자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어 “운임 수준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현실적으로 운임 인상도 곤란해 영업적자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지난해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조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김 교수는 현 상태를 방치할 경우 고속철도 이익으로 교차 보조 중인 벽지 노선 등 일반철도의 안정적인 운행에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고속철도 분리 운영으로 인한 단점이 장점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코레일과 SR 분리로 연간 559억 원의 중복 거래비용 발생한다는 국토부의 2018년 철도산업구조 평가용역 중간보고서를 인용, 코레일과 SR의 불완전한 경쟁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SR은 차량정비, 역 운영, 시설 유지보수, 관제 등 대부분 필수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하고 있는데, 양사의 실질적 경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동일 업무수행에 따른 비효율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운영기관 이원화로 SRT 운행장애 등 돌발 상황 때 신속한 조치가 어렵고 SRT 전용 노선에서 사고 시 지휘계통 혼선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고속철도 통합 운영 시 운영사 일원화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요금 인하도 가능하다”며 “통합 시너지를 통한 경영혁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SK, 친환경 에너지 ‘청록수소’ 진출

美 모놀리스 투자 이사회 의석 확보

투자전문회사 SK㈜가 세계 최초로 청록수소 대량생산에 성공한 미국 모놀리스(Monolith)에 투자한다.

SK㈜는 3일 모놀리스가 수소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로 자사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SK㈜는 리딩투자자로서 모놀리스 이사회 의석도 확보했다. 이번 투자에는 미국 최대 발전·신재생에너지 개발회사 넥스트에라 등도 참여했다.

청록수소는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를 고온 반응기에 주입한 뒤 수소와 고체탄소로 분해해 생산되는 수소다.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아 블루수소, 그린수소와 함께 친환경 청정 수소로 분류된다.

미국 네브래스카주에 있는 모놀리스는 2012년 설립됐다. 독자 개발한 반응기에 천연가스를 주입한 뒤 열분해하는 방법으로 고순도의 청록수소와 고체탄소를 생산하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모놀리스는 지난해 6월 세계 최초 청록수소 양산 공장을 완공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업화 단계에 접어든 공정기술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모놀리스는 청록수소 생산시설을 확장할 계획이다.

청록수소는 블루수소의 경제성과 그린수소의 친환경성을 갖췄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아 블루수소 생산에 필수적인 탄소 포집·저장(CCUS) 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린수소보다 적은 전력량으로도 생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블루수소에서 그린수소로 넘어가는 전환 과정에서 전략적 대안으로 떠오른다.

미국 네브래스카주에 있는 모놀리스의 첫 번째 청정수소 생산 시설. 사진제공 SK

SK㈜는 수소 사업 가치사슬에 청록수소 포트폴리오를 추가해 청정 수소 리더십을 확보하고 글로벌 수소 생태계 확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까지 28만 톤 규모의 청정수소 생산 체제 구축을 골자로 한 수소 사업 로드맵 실행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놀리스는 청록수소 생성 과정에서 카본블랙 등 친환경 고체탄소도 생산한다. 카본블랙은 타이어, 기계용 고무부품 필수 원료로 활용된다. 탈 탄소를 추진 중인 글로벌 타이어 업계를 중심으로 친환경 고체탄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

SK㈜는 지난해 말 그룹 차원의 수소 사업 전담조직인 ‘수소사업추진단’을 신설했다. 관계사 역량을 결집해 2025년까지 수소 생산·유통·소비에 이르는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글로벌 1위 수소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대영 기자 kdy@

영어 EBS 연계율 하락·國數 공통과목 어려웠다

6월 수능 모의평가 출제경향 분석

공통과목 '킬러문항' 난이도 상승 "문과생, 이과생보다 불리할 것"

영어지문 직접연계→간접연계 전환 1등급 비율 큰 폭 감소 예상

문·이과 통합 체제인 2022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3일 실시된 6월 모의평가는 우려됐던 선택과목이 평이하게 출제된 반면 공통과목의 킬러문항 난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도 지난해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됐다. 선택과목 간 난이도에 따라 유불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공통과목과 영어 영역에서 변별력을 높였다.

◇고3 문과생 모평 점수 낮아질 듯=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062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13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시험을 실시했다.

이번 평가에 응시한 총 수험생은 48만 2899명으로 재학생 41만5794명, 졸업생 6만7105명이다. 지난해 6월 모평 대비 지원자 수는 387명이 감소했다. 재학생은 735명이 줄어들었으나 졸업생이 348명 증가했다.

이번 모평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에 따른 개편 사항이 적용됐다. 국어·수학 영역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구조로 개편됐다. 문·이과 학생이 함께 치르고 성적도 통합해 계산된다.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이 출제하는 올해 첫 모평인 데다 졸업생이 합류한다는 점에서 이번 시험은 대입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척도다.

'공통+선택과목' 체제로 치러진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에서 점수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입시 업체는 국어·수학 공통과목의 난도가 높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번 모평에서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영역은 '독서' 영역이다. 국어는 '독서'와 '문학'을 공통과목으로 치르고,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 1개 과목을 선택한다. 독서 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달리 지문이 3개에서 4개로 늘어났다.

메가스터디는 "공통과목, 그 중 특히 독서 영역의 유형이 생소했고 난이도도 높아 수험생들이 고전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진학사는 "독서의 지문이 4개로 늘어난 데다가 앞부분에 몰려 출제됨에 따라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정보의 의미를 추론하는 문항이 많아 풀이 시간 역시 많이 소요됐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수학 역시 공통과목(수학 Ⅰ·Ⅱ)이 어려운 반면 선택과목(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이 평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문과생은 '나형', 이과생은 '가형'을 선택해 따로 시험을 치르고 성적도 별도로 산출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문·이과 구분 없이 시험을 치르고 성적도 함께 매긴다.

유웨이는 "이번 모의평가 수학 공통과목은 지난해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진학사는 "공통과목의 경우 킬러 문항이 까다롭게 출제돼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가스터디는 "이과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미적분'과 '기하'에서의 체감 난이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형평성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보인다"며 "9월 모의평가와 수능은 선택과목의 시험 범위가 늘어나긴 하지만 공통과목에서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경향은 지속될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모평의 과목별 난이도를 고려하면 문과 학생들이 공통과목에서 이과 학생보다 낮은 성적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이번 모평에는 재수생도 가세해 문과 재학생들은 3, 4월 모의고사 때보다 점수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면서 "같은 점수를 받고도 (수학의) 미적분 선택 학생이 확률과통계 선택 학생보다 표준점수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영어, 문과생 수능 최저등급 최대 변수=영어 영역도 어려워졌다. EBS 연계 방식이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직접 연계에서 소재 등이 유사한 간접 연계로 바뀌면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대성학원은 "2021학년도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됐다"고 밝혔다. 진학사도 "EBS 교재의 지문들과 소재만 유사할 뿐 지문 활용면에서는 연계율을 체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어는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90점 이상은 1등급, 80~89점은 2등급 등 원점수에 따라 등급이 산출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난도가 올라가면서 1등급 비율이 지난해 수능(12.7%)보다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직접 연계 지문이 없어 시간이 부족했고, 문항 전체에 걸쳐 체감 난이도가 높아진 상태"라며 "지난해 수능 1등급 12.7%보다 1등급 비율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문·이과 통합 체제로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첫 모의평가가 실시된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시험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6월 모의평가 주요 영역별 난이도 분석

국어	–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쉬우나 공통과목의 '독서' 어려웠음 – 선택과목(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의 경우 유불리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수학	– 선택과목(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 평이 – 공통과목(수학 Ⅰ·Ⅱ)에서 변별력 갈릴 것으로 보임 – 공통과목에서 문·이과 유불리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
영어	– 지난해 수능보다 어려움 – EBS 연계율이 줄어들어 체감 난도가 높았을 것

※ 출처: 입시업체

"대학도 2학기부터 대면수업 확대"

주말 강의 등 서울대 방식 준용

시간 분산·비대면 수업도 병행

교육부가 2학기부터 초·중·고 전면 등교를 추진 중인 가운데 대학도 대면 수업과 학사 활동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대학 방역 및 학사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1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속된 온라인 수업·학사 활동으로 인해 대학 현장에서 대면수업 확대 등 '일상으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며 "각 대학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수업과 학사활동을 대면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대교협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면 수업 확대는 서울대학교의 방식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2학기 대면 수업 재개를 준비 중이다.

서울대는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 등교하는 학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강의를 분산해 편성하기로 했다. 강의가 없던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 주말 등에 강의를 개설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점심시간과 금요일 강의도 권장된다.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비대면 수업도 병행한다.

서울대는 2시간 이내에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도입했다. 서울대는 4월 신속진단검사센터를 설치해 자연과학대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했고 지난달 6일부터는 학부생을 포함한 학내 전 구성원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교육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서울대 수업 방식이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서울대를 비롯해 외국의 대면 수업 확대 방식을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학의 규모, 위치, 여건 등 상황에 따른 대면 수업과 학사 운영 모델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의 대면 수업 방안은 이달 중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코로나로 인한 학습결손이 심화하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학교 밀집도 기준을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 조정한다.

손현경 기자 son89@

“인내·포용 없인 정권교체 없어, 야권통합 기다릴 것”

인터뷰 국민의힘 당대표戰 ⑧ 나 경 원

통합 대선주자 위한 플랫폼 구축
1명이라도 더 태워 추석後 출발
공정·흥행 ‘두 토끼’ 잡도록 노력
약자와 동행 ‘소통 정당’ 만들 것

“단 한 분의 후보라도 더 태우기 위해 1분 1초라도 더 기다리겠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주자인 나경원 후보가 생각하는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한 전제 조건은 ‘인내와 포용’이다.

나 후보는 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최상의 시나리오는 ‘다 같이 뛰는 경선’”이라며 “이들을 모두 기다리기 위한 인내가 없이는 통합 경선을 통한 정권교체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안철수 대표의 합류도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숙제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나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야권 전체가 정권교체 열차에 함께 탑승할 수 있는 ‘통합 대선 주자 선출을 위한 플랫폼’으로 만들 계획이다.

나 후보는 “야권 전체의 대선 승리를 위해 경선열차 출발일을 추석 이후로 늦출 것”이라며 “이 플랫폼 안에서 구체적인 일정, 경선룰을 모든 후보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정하게 결정해야 하며, 그 이후 경선열차는 출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운동장 안에서 모든 후보들의 경쟁을 통해 ‘공정성’, ‘흥행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

그러면서 나 후보는 “오로지 대선승리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경쟁력 있는 당대표를 뽑아 국민대통합을 이루며 야권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무엇보다 쇄신의 핵심인 통합이 중요하다는 것. 나 후보는 이준석 후보 등 ‘젊치인(젊은 정치인) 열풍’은 환영한다면서도 결국 통합에 있어서는 “당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경륜, 정치력, 통합의 리더십을 가진” 나 후보 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나선 나경원 후보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한 전제 조건은 인내와 포용”이라고 강조했다. 이투데이 DB

당의 통합을 위해 나 후보는 구체적으로 △지역·세대 통합 확장 △당원 중심 정당 △소통의 정당 등 3가지를 약속했다.

그는 “그동안 분열로 몸살을 앓았던 지역과 세대, 계층, 가치를 대통합 안에서 확장하고, 약자와의 동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당원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책임과 권리를 모두 누리는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 것”이라며 “개혁의 목소리를 유연하게 흡수하는 소통의 정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나 후보는 특히 청년을 위한 ‘기회의 장’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당 대표 직속으로 20대 현실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이실직고연구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연구소장 역시 20대를 임명해 청년 목소리를 당의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

또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청년 할당제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가 청년정치인들도 경쟁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셈이다.

나 후보는 주요 공직선거의 피선거권 나이 제한을 폐지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20살 기초광역의원이 나올 수 있는 환경도 만들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재는 만 25세 이상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사실상 20대 절반은 피선거권이 없는 셈이다.

나 후보는 “우리 당이 집안싸움 하느라 여기까지 왔으며, 이번 대선에서 그런 실수를 또다시 반복해선 안 된다”면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경선을 위해 통합의 리더십으로 완벽한 중립을 지키며 가장 아름답고 공정한 대선 경선을 이끌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김종인 대구서 특강 김종인(맨 오른쪽)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3일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끝내고 나오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출마자들의 대구 합동연설회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가족수사’ 요구에 발끈한 尹측 “도 넘어”

“법조인 출신 宋 발언 예의 아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에 대한 엄정 수사 요구 발언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이 “도를 넘었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윤 전 총장 장모 최모 씨를 변호하는 손경식 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정치인들이 수사기록 내용도 모르면서 일방적인 비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손 변호사는 “재판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재판부 판단 과정에서 법정 밖에서 함부로 가타부타 논란을 빚는 것은 사법·재판제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만이라도 원칙을 지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변호사 출신이다.

앞서 송 대표는 전날 조국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하며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일각에서 최씨가 2015년에 주범이 작성해준 면책각서 때문에 불입건 됐다는 주장을 반복하는데, 이는 당시 수사와 재판은 물론이고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새로 수사한 내용에서도 쟁점이 아니고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고발 당시에 처음 끄집어낸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 대표와 황 최고위원 등이 고발한 윤 전 총장 부인의 회사 협찬금 관련 혐의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 한번 하지 않았다며 “근거를 갖고 조사할 게 있으면 조사하라는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최근 “윤 전 총장 가족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손 변호사는 “정 전 총리가 ‘왜 수사 안 하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할 얘기”라며 “수사 중인 상황만 계속 무한정 끌어 프레임을 씌우는 게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이 벌이는 행태”라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김병욱 “가상자산 업권법, 올 가을 통과해야”

국힘에 ‘코인대책’ 선수 뺏긴 與 ‘갈지자 행보’ 속
‘건전한 생태계 조성’ 토론회 열고 공론화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제도화를 두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병욱〈사진〉 민주당 의원이 앞장서 공론화에 나섰다.

가상화폐는 근래 광풍이 불며 급등락을 거쳐 수많은 투자자가 물려있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정작 여당인 민주당은 의원들의 개별적 법안 발의만 있을 뿐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움직임이 없다.

민주당에서 들려오는 건 ‘진퇴양난’이라는 토로다. 민주당 한 의원은 “특위를 만든다는 건 사전에 큰 틀을 정했다는 것인데, 우리 당은 가상자산을 진흥시킬지 규제할지 방향도 못 잡은 상태”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볼지, 커머더티(commodity, 원자재)로 취급할지 ‘정의’부터 내리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정의에 따라 현행법들을 적용시키거나 차용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가상자산’이라는 임시 개념을 쓴 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투기성이 분명 짙은데 진흥시켜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잘못된 걸 키웠다는 큰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그렇다고 규제하자니 이미 뛰어든 이들이 많아 반발을 피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제도화에 앞장선 이가 김병욱 의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전문가들과 연구를 거쳐 업권법인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거래소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불공정행위를 보고하는 의무를 지워 당국의 영향력이 닿도록 하는 한편, 업계가 ‘가상자산산업협회’를 꾸려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진흥과 규제를 한 데 모은 것이다.

해당 법안을 두고 김 의원은 3일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에 나섰다. 올가을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거래소가 중심이 된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를 하고 자율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금융위가 직접 나서 수 있게끔 하는 게 적절하다”며 “투자자들의 규모, 피해사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국가적 과제 등이 결합된 시점이라 올가을에 반드시 가상자산업권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反이재명’ 손잡은 이광재·조정훈

‘양극화 해소·국민 삶의 질 향상’ 정책 협약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광재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3일 정책협약을 맺었다. 두 인사 모두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한 바 있어 ‘반(反) 이재명’ 연대 모양새다.

이·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극화 해소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해당 의무를 담는 개헌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삶의 질 측정 지표 개발 및 정치인 성과 평가 기준으로 적용 △예산 개혁 등을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협약을 맺었다.

조 의원은 정책협약이 이 의원 대권 도전을 지지하는지 묻는 말에 “공당의 대표로서 지지 선언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평소 이 의원을 보며 정치는 이렇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기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고, 이심전심”이라고 우회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했다.

이·조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날을 세운 적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주목된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대권 도전을 선언하며 “미래를 이야기하고 통합을 이야기하는 후보가 없다”며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지난달 30일에는 “백신 문제가 해결돼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경선을 시작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이 지사 측에서 반대하는 대선 후보 경선 연기론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조 의원의 경우 이 지사와 같이 기본소득을 주장한다는 접점이 있지만,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로 이 지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윤호 기자 uknow@

사회 초년생까지 부담없이
LIFEPLUS 어른이보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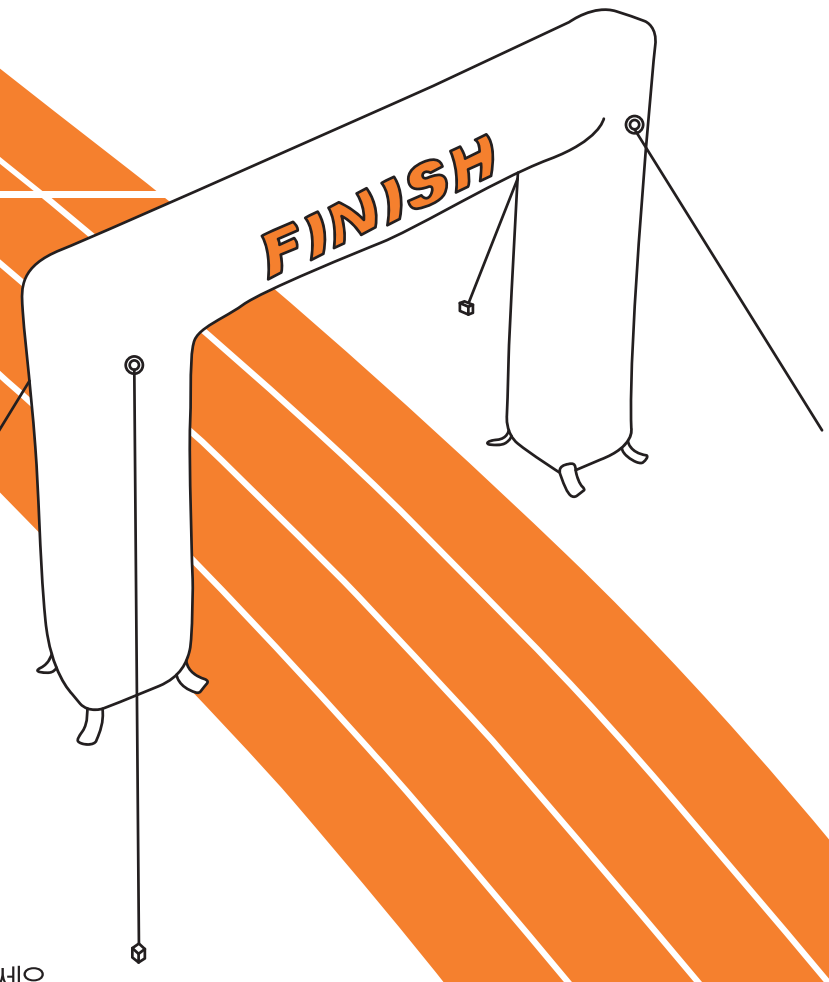
가슴 뛰는 순간은 오늘도 계속되어야 하니까

인생에 든든한 보험이 필요한 순간마다 늘 당신 곁을 지켜온 **한화생명**
앞으로도 지금처럼 당신의 활기찬 인생이 이어지도록
한화생명이 함께하겠습니다

치아관리도 놓칠 수 없으니까
한화생명 스마일 치아보험(갱신형)(무)

중대 질병까지 보장해주는
한화생명 실속플러스 GI보험(무)

가입 문턱은 낮추고 가입 한도는 확대한
한화생명 간편가입 노후안심 치매보험(무)



상담문의 **080.365.6363**

한화생명 치매보험 을 검색해보세요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아보장 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중대질병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합니다.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자세한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hanwhalife.com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0-03030호 (2020.10.27) 준법감시인확인필 CS 20-10-22

LIFE PLUS 한화생명

〈저비용 항공사〉

고용유지금 지원 90일 연장 '한숨 돌린 LCC'

이달 종료 여행·항공 등 15개 업종
고용부, 3개월 지원 연장 안건 의결
'경영악화' 저가 항공사에 단비 될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악화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항공, 여행 등 15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270일로 90일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대량 실업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LCC)들로서는 한 시름 덜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열린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적용 업종은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 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 15개 업종이다. 이들 대부분 업종은 이달 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만료를 앞둔 상태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들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돼 지원 기간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기존 연간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15개 업종에 속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업·휴직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최대 90%를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3개월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지급 받고 있는 사업주는 9월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LCC들엔 단비가 될 전망이다. 올해 1분기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국내 LCC 상장사들은 2395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급휴직을 시행해온 이들 업체는 이달 말 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면 내달부터 무급휴직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런 이유로 이들 업체는 이달 초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공식 요청했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코스피 오늘 최고치 경신할까 3일 서울 여의도 KB국민흥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및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23.20포인트(0.72%) 상승한 3247.43, 코스닥은 9.09포인트(0.93%) 오른 990.19로 거래를 마쳤다. 조현호 기자 hyunho@

〈조류인플루엔자〉

고병원성 AI 과도한 방역 달걀값 1년새 45% '껑충'

사실상 종료…살처분 피해복구 과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국내발생이 사실상 종식되면서 살처분에 따른 피해 복구와 방역 대책이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강력한 조치로 확산을 막았다는 입장이지만 농가에서는 과도한 살처분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0월 21일 야생조류에서 처음 확인됐고, 이후 11월 26일 가금농장에서 발생했다.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2017년 이후 2년 8개월 만이었다. 이후 올해 4월 6일까지 발생한 뒤 약 2개월 동안 발생하지 않았고, 주요 감염원인 철새가 우리나라를 떠나면서 사실상 종식됐다. 현재 AI 위기경보는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이번 AI 발생으로 살처분한 가금은 모두 2993만4000마리다. 앞서 막대한 피해를 줬던 2016~2017년 AI 당시 살처분 마릿수 3787만 마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다.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은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40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2016~2017년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소득 안정자금 지원 등에 투입된 예산은 3621억 원이었다. 살처분 마릿수가 급증한 것은 2018년 개정된 정부의 AI 긴급행동지침(SOP) 때문이다. SOP 개정으로 500m에 불과했던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발생농장 반경 3㎞ 이내로 강화됐다.

강화된 방역조치로 AI 차단에서는 효과가 발생했다. 2016~2017년 AI 발생 때와 비교해 야생조류 AI 발생 건수는 3.6배 늘었지만 발생농장(109곳)은 25%로 낮아졌다. 다만 방역 강화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했다. 산란계 살처분이 늘어나면서 달걀이 부족해졌고, 가격이 급등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3일 기준 특란(중품) 30개 소매가격은 7508원으로 1년 전 5191원에서 약 45% 올랐다. 양계업계 관계자는 "많은 산란계가 살처분됐고, 병아리값도 크게 올라 재입식도 쉽지 않다"며 "이 때문에 달걀값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친족분리 신설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차단 위해
벤처지주회사 자회사 지분 보유 금지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계열분리된 친족회사는 분리 후 3년 이내에 신설한 회사에 대해서도 내부거래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를 막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전부 개정안은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제도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현행 규정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제외되는 조건으로 계열분리된 친족회사에 대해 3년간 내부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분리 후 친족회사가 신설한 회사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개정안은 친족 분리가 결정된 이후 3년 이내에 신설된 회사까지 내부거래내역을 제출토록 했다. 또 친족독립경영 결정이 취소되거나 청산 등으로 친족 측이 지배하는 회사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친족을 다시 동일인(그룹총수) 관련자로 복원토록 했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또 벤처지주회사제도를 악용해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가 벤처지주회사의 자·손자·증손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벤처지주회사가 지주·자·손자·증손회사와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관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백신공조’ 외면한 선진국, 2년치 부스터샷까지 선점

WHO “백신 공평분배” 촉구에도 EU, 4차 접종 가능한 물량 확보 ‘보급난’ 개도국과 격차 더 벌려

국제 사회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선진국들이 여전히 백신 물량을 선점하는 행보를 걷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들이 향후 2년 동안 부스터샷(추가접종)을 포함해 수억 회분에 이르는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나라 간 ‘백신 격차’는 앞으로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앤테크는 오는 2023년 말까지 EU에 최대 18억 회분의 백신을, 캐나다에 최대 1억 2500만 회분의 백신을 각각 공급하기로 했다. EU에 공급되는 물량은 역내 전체 인구 4억5000만 명이 필요한 두 차례의 접종을 모두 끝마치는 것은 물론, 4차 접종까지 가능한 물량이다. 미국 모더나는 호주·스위스·이스라엘과 내년까지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스위스의 경우에는 2023년 공급에 대해서도 옵션 계약을 맺었다.

이러는 것은 가뜩이나 백신 보급난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개발도상국과의 격차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백신 구매를 추적하는 미국 듀크대학 글로벌보건혁신센터에 따르면 24곳 이상의 부유한 나라와 EU는 약 60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했다. 반면 나머지 국가들이 구매한 접종 분량은 다 합쳐도 그 반인 30억 회분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백신의 빈익빈 부익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날 현재까지 전 세계에 접종된 18억 회분 백신 중에서 저소득 국가에서 투여된 물량은 고작 0.4%뿐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윤리적으로, 역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평한 백신 분배를 촉구했다.

현재 WHO가 주도하는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COVAX)’가 저소득 국가에 대한 백신 공급을 주도하고는 있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코백스는 현재까지 127개 국가에 77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전달했지만, 제조 및 배송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 보건 및 백신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확산 억제와 새로운 변종 출현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백신 물량을 필요로 한다고 역설한다. 개도국 내 충분한 숫자의 주민들이 바이러스에 면역을 갖지 못한다면 선진국 역시 완전히 문을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도국에서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악화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싱크탱크 글로벌개발센터의 프라산 야다브 선임연구원은 “선진국들이 향후 몇 년간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함에 따라 저소득 및 중산층 국가들은 아마도 백신을 공유하거나 재할당하는 부국들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격차가 지속된다면 자국산 백신을 열심히 공급해 온 중국이나 러시아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나라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화웨이, 독자개발 OS ‘훙멍 2’ 공개 중국 화웨이테크놀로지가 2일 광둥성 선전 본사에서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자체 모바일 운영체제(OS)인 ‘훙멍 2’를 공개했다. 화웨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제재로 구글 안드로이드를 쓸 수 없게 되자 자체 OS 구축에 나섰다. 2019년 첫선을 보인 훙멍의 2세대 버전인 이번 OS는 스마트폰은 물론 태블릿과 스마트워치 등 더 광범위한 기기에 쓰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선전/신화연합뉴스

이스라엘 ‘네타냐후 15년 집권’ 막 내려

‘야권 연정 타결’ 차기정부 총리 베네트·라피드가 2년씩 맡기로

이스라엘 최장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사진〉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연정이 최종 합의되면서 총리직도 바뀌게 됐다.

2일(현지시간)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에 따르면 야당 연정 협상을 이끄는 예시 아티드 당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이날 레우벤 리블린 대통령에게 연정 최종 합의 사실을 공식적으로 보고했다.

연정의 첫 총리는 극우 성향 정당이자 막판에 연정에 합류한 야미나의 나프탈리 베네트 대표가 맡을 예정이며, 2년 후 라피드 대표가 물려받기로 했다.

좌파인 노동당과 우파는 물론, 아랍계 정당들까지 정치 성향이 전혀 다른 정당 9곳이 네타냐후를 끌어내리기 위해 힘을 합쳤다. 연정에 대한 최종 승인은 다음 주 초 의회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지난달 총선 이후 대통령과 원내 진출 정당 간의 면담에서 전체 의원 120명 중 52명이 네타냐후 총리를 지지했다. 과반에 미치지 못했지만, 라피드 대표(45명)보다 많은 지지를 얻었다. 이에 네타냐후는 차기 정부를 구성할 총리 후보로 지명돼 28일간의 연정 결성 기간을 받았지만, 극우 성향 정당들이 야권 쪽으로 돌아서면서 반(反) 네타냐후 진영이 과반을 기록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9개 정당이 보유한 의석수는 총 68석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2009년 3월부터 현재까지 12년 2개월을 집권했다. 1996년부터 3년간 맡았던 첫 임기까지 포함하면 15년 이상을 총리로 활동하며 이스라엘 최장 기간 재임 총리로 기록됐다. 부정부패 의혹이 네타냐후의 발목을 잡았다. 검찰은 2019년 말 네타냐후를 뇌물수수와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신임 총리로 예정된 베네트 대표는 네타냐후의 수석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국방장관 등을 역임했지만, 2018년 리쿠드당에서 탈당하면서 총리와 등을 돌렸다.

베네트는 오랜 기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합병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하지만 이제 연정으로 인해 아랍 소수 민족 정당과도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는 지난주 연설에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선거는 다섯, 여섯 차례를 넘어 열 차례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단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네타냐후 편에 선 의석이 상당 부분 있는 만큼 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라피드-베네트 연정의 다양한 구성은 정치적 분열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는 누구도 네타냐후 총리의 복귀를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타냐후 총리 역시 우익과 중도, 아랍 정당 등을 토대로 새로운 연합을 펼칠 준비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게이츠·버핏, 나트륨 원전 건설 “에너지 산업 게임체인저 될 것”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와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손잡고 ‘친환경’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

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게이츠와 버핏은 첫 ‘나트륨’ 원자력발전소 건설 부지로 미국 서부 와이오밍주의 폐쇄 석탄 공장 부지를 낙점했다.

게이츠는 이날 마크 고든 와이오밍주 주지사가 주재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원전기업 ‘테라파워’와 버핏 소유의 전력회사 ‘퍼시피코프’가 와이오밍주에 나트륨을 이용한 핵 발전소를 건설한다”면서 “정확한 부지는 연말 공개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라파워는 게이츠가 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두고 15년 전 설립했다. 이번 원전 건설에는 10억 달러(약 1조1000억 원)가 투입될 예정이다. 작년 미 에너지부는 테라파워에 나트륨 기술 자금으로 8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게이츠가 밝힌 ‘나트륨’ 원자로는 345메가와트(MW) 규모이나 전력 수요가 최고일 때 500MW를 생산할 수 있다. 새 발전소는 약 25만 가구가 쓰기에 충분한 전력을 생산한다. 수소연료전지에 들어갈 수소도 생산할 예정이다.

기존 경수로나 중수로와 다른 소듐냉각 고속로(SFR) 방식이다. 고속 중성자를 이용해 핵분열을 일으키고 이때 발생하는 열을 액체 나트륨으로 냉각시켜 만들어진 증기로 전기를 생산한다. 크리스 레베스크 테라파워 최고경영자(CEO)는 “나트륨 원전은 기존 원전보다 핵 폐기물이 3분의 2 더 적게 나온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2일(현지시간) 화상회의에 참석해 새 나트륨 원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와이오밍/AP연합뉴스

반면 전통적 방식보다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존 원자로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료 농축이 필요해 핵무기를 노리는 세력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이츠는 “나트륨이 에너지 산업에서 ‘게임체인저(game-changer)’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2월 전 세계에서 동시 출간된 책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에서 “원자력이 자동차나 화석연료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을 죽인다”며 “원전 문제를 분석한 뒤 혁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최대 석탄 생산지인 와이오밍주를 건설 부지로 선택한 데 대해 게이츠는 “와이오밍주는 한 세기 넘게 에너지에서 선두주자였다”며 “나트륨 원전 투자로 향후 수십 년 와이오밍이 선두를 유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밈주식 광풍’ AMC 올 들어 2850% 폭등

로빈후더·경제활동 재개 등 호재, 하루새 95% 올라

미국 영화관 체인 AMC 주가가 올 들어 2800% 넘게 폭등했다. 올해 초, 공매도 세력과 일전을 벌인 개미 투자자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성과로 할리우드가 살아난 영향도 받았다. 그야말로 개미가 끌고 백신이 밀면서 AMC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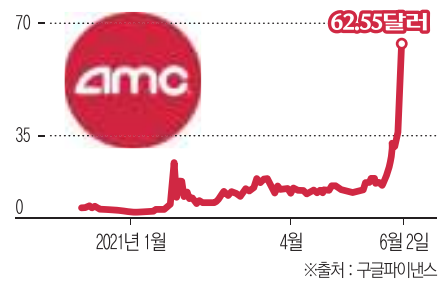
2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이날 AMC 주가가 전날 대비 95% 폭등한 62.55달러에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120% 이상 치솟아 사상 처음으로 주당 70달러를 넘기도 했다. 전날 20% 뛴 데 이어 상승폭을 더 키운 것이다.

이날 주가는 AMC가 머드릭캐피털에 850만 주를 매각했다는 소식에 폭등했다. AMC는 해당 자금으로 영화관 시설을 개선하고 신규 영화관을 늘리는 데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영화업계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현금 고갈 직전까지 내몰렸던 AMC로서는 반전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미국이 코로나 터널에서 탈출해 경제활동 재개에 시동을 건 것도 AMC 전망 기대감을 키웠다. ‘메모리얼 데이(현충일)’ 연휴 기간 박스오피스가 1억 달러에 육박, 할리우드 복귀 신호탄을 쏜 바 있다.

AMC 주가 상승 곡선을 올 초로 확대하면 상승률은 2850%에 달한다. 미국 개미 군단이 월가의 공매도 세력과 일전을 벌인 영향이다. 개미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의 토론방 ‘월스트리트베츠’에서 공매도 표적이 된 회사들의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 AMC와 비디오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톱’이 대표적이다.

이로써 올 초 2달러 수준에 불과하던 AMC 주가는 급등세를 탔다. 그 결과 애덤 애런 AMC 최고경영자(CEO) 자산은 5개월 만에 2억 달러(약 2200억 원) 이상 불어났다. 그는 주가 폭등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았다.

AMC 주가 추이 ※ 현지시간 종가 기준



※출처 : 구글파이낸스

애런 CEO는 AMC의 구사일생을 이끈 개미들을 위해 보답에 나섰다. AMC는 이날 웹사이트에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전용 포털을 만들어 ‘스페셜 오퍼’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공짜 팝콘이 포함돼 있다. 또 ‘AMC 인베스터 커넥트’라는 플랫폼을 통해 주주들에게 영화관 무료 또는 할인 이벤트, 특별상영관 초청, CEO와의 만남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서영 기자 0jung2@

‘연체 이자율 상한’ 제도화, 이자 급등 막는다

금융위 ‘2년마다 재검토’ 조항
취약 차주 보호에 무의미 판단
일몰 심사 조항 폐지 나설 듯

금융회사에 대한 연체이자율 상한 규제의 존속을 논하는 일몰 조항이 12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및 여신금융기관(이하 여신금융업)에 적용한 연체이자율 상한 규정의 유지나 폐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일몰 조항을 없애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신금융업의 연체이자율 상한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이하 연체이자율 규정)’에 나와 있다. 해당 규정은 올해 일몰 심사대상이다.

연체이자율 규정 연혁

2002년 11~12월	규정 제정 및 시행 연체가산이자율 상한 12% 규정
2009년 8월	‘제4조 재검토기한’ 신설
2015년 6월	재검토기한 매 2년으로 개정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2018년 4월	연체가산이자율 상한 3%로 인하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당 조항 연혁

연체이자율의 일몰 심사는 같은 규정 ‘제4조 재검토기한’에 따른 것이다. 이 일몰 조항은 지난 2009년에 신설됐다.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규정의 유지·폐지·개정 등을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마련된 것이다.

현재 규정은 2015년 6월에 개정된 내용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에 규정의 존속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개정된 사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올해 그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이번에 이 일몰 조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체이자율 상한은 금융회사들이 연체이자율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것을 방지해 취약 차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든 만큼 존폐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이자율 규정은 취약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 같은 목적을 가진 조항에 대해 일몰 심사를 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연체이자율 규정에 명시된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은 현재 연 3%다. 2002년 제정됐을 때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12%였다. 이후 16년이 지난 2018년에 현재 수준으로 인하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개정 이유를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2018년 1월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변경하고 인하한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연체이자율 산정 방식을 보면 ‘대출금리+3%’, ‘약정금리+3%’로 표기돼 있는 것도 이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최고연체이자율을 연 15%로 책정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최고연체이자율이 연24%까지 돼 있다. 이는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되는 법정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조치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연체이자율 규정을 개정할 경우 금융위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진다. 이후 개정이 결정되면 법 개정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9일까지 연체이자율 상한 등 해당 규정의 존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다. 업계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도 의견을 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가산이자율 추가 조정은 의견을 받아본 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금융협회 ‘금소법’ 뒷수습 분주
대출모집인 관리 강화 전액 부담

금융 인사이트

시스템 구축에 협회당 2억
“인력·예산 빠듯” 한목소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금융협회(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협회 등)들도 함께 분주해졌다. 금소법에 따른 애로사항,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실무적인 업무를 함께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니터링과 대출모집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한데, 인력과 예산은 빠듯한 상황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협회들은 금소법 시행에 따라 ‘대출모집인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 금소법에서는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려면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은 원래 모범규준에 따라 관리했는데 금소법 시행 후 관리가 강화됐다”며 “이제 법상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니, 시스템도 이에 맞춰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법은 3월 25일부터 시작됐지만 대출모집인 등록은 6개월 유예돼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협회는 이 시기에 맞게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시스템 구축 비용은 협회당 2억 원 가량이며, 협회 예산에서 부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각 금융업권별 협회가 등록현황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각 금융업권별 협회가 진행 중인 대출모집인 등록 진행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협회의 역할이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협회는 광고심의와 가이드라인 제정, 금소법 관련 금융사와 당국의 중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각 업권에 공유하고 전파하는 역할도 협회 담당이다. 금융사와 소비자의 최접점에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앞으로도 지방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회원사 대상 금소법 제도 교육과 모범사례를 발굴해 공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도 금융협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 후 금융협회장들을 만나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세부지침 마련이 늦었고, 일선 창구까지 지침이 잘 전달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금융협회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상황이 이렇자 협회 내 금소법 담당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사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협회 예산도 빠듯한 상황이다. 금융협회 한 관계자는 “금소법 담당자들은 금소법 이후에도 가이드라인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당국과 금융사와 연일 회의하고 있다”며 “높아지는 위상과 역할에 맞게 인력과 예산도 따라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씨티은행 “복수 금융사 인수의향서 제출”

소매금융 매각 두 번째 이사회
“고용승계엔 부정적 입장 들어”

한국씨티은행이 국내 소비자금융 부문 전체 매각(통매각)을 추진하는 가운데, 복수의 금융회사가 인수 의향을 밝혔다. 다만, 이들은 소비자금융 직원들의 고용승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최종 매각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씨티은행은 매각이 어려울 경우 단계적 폐지도 고려하기로 했다.

한국씨티은행은 3일 오후 진행된 정기 이사회에서 매각 관련 진행 경과보고 및 향후 출구전략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본사 씨티그룹의 소비자금융 출구전략 추진 발표 이후 열린 두 번째 이사회다.

매각 진행 경과와 관련해 한국씨티은행 경영진은 “복수의 금융회사가 인수의향서를 접수했으나, 전체 소비자금융 직원들의 고용 승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씨티은행은 “향후 진행 방향과 관련해 접수된 인수의향서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입찰대상자들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최종입찰대상자들의 상세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한국씨티은행 본점 창구 모습.

앞서 한국씨티은행은 자산관리(WM), 신용카드, 대출 등으로 구성된 소비자금융 부문의 ‘전체매각(통매각)’을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인수 의향서(LOI)를 받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업계에선 한국씨티은행 임직원의 연봉 등 ‘몸집’ 때문에 통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에 한국씨티은행은 WM과 신용카드 사업 등을 분리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분리매각으로 전략을 바꾸더라도 매수자 찾기가 쉽지 않다. 앞서 한국씨티카드의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현대카드는 “초기에 씨티카드 인수를 검토한 바 있지만 최종적으로 인수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선 실제로 인수의향을 밝힌 금융사도 ‘고용 승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부문 매각 자체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한국씨티은행 이사회와 경영진은 ‘단계적 폐지’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 절차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진행 상황에 다소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7월 중에는 출구전략의 실행 윤곽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씨티그룹은 지난 15일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에서 소비자금융 사업을 접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앞서 HSBC가 2011년 국내 시장에서 소매금융을 철수했을 당시 산업은행에 지점을 매각하려다가 직원의 고용승계 문제가 대립하면서 매각에 실패했다. 결국 HSBC는 지점의 폐쇄를 결정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금융위, 20개 가상화폐 사업자 만난다

거래소 신고 등록 컨설팅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 20여 곳을 직접 만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등록 안내 컨설팅(가칭)’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곳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조속한 신고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지난달 28일 정부 발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를 위한 정부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안내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요건(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대표·임원이 특정금융정보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관련법령 등 위반 없을 것)과 함께 사업자 취급금지 가상자산 규정, 사업자 시세조종 금지 등과 관련된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업자의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사업자를 관리·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를 지정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요건을 갖춰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김범근 기자 nova@

카뱅, 중저신용 대출 확대 TF 구성

매달 2500억 규모 순증 목표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 고객 대상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저신용 고객 대출 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3일 밝혔다. TF장은 카카오뱅크의 경영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김광옥 부대표가 맡는다. 이형주 비즈니스책임자(CBO), 고정희 서비스책임자(CSO), 김석 리스크관리책임자(CRO)를 비롯해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참여한다.

카카오뱅크는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신용평가모델(신 CSS)를 적용한다. 신CSS는 중·저신용 고객의 대출 상환 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해, 대출 가능 고객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2020년말 기준 1조 4380억 원이었던 중·저신용 고객의 무보증 신용대출 대출 금액(잔액 기준)을 올해 말까지 3조1982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간 순증 목표는 1조 7602억 원이다. 지난 5개월 간의 순증 규모를 고려했을 때 6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뤄낼 월 평균 대출 순증 규모는 2500억 원이다. 이를 통해 2021년말에는 20.8%, 2022년말에는 25%, 2023년말에는 30%으로 중·저신용 고객 대출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김범근 기자 nova@

BNK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본격 추진

BNK금융그룹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제휴로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통합 고객금융정보 기반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BNK는 1일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BNK캐피탈 등 그룹 3개 계열사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쿠콘을 지정했다.

쿠콘은 국내 500여개 기관의 데이터를 수집해 국내 주요 은행과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뱅크샐러드 등 금융기관 및 핀테크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올해 1월에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를 취득한 코스닥 상장사이다.

BNK는 쿠콘과 세부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서비스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해 ‘BNK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자산조회, 가계부, 지출관리 등 개인자산관리와 금융상품 추천, 신용관리, 비금융정보 제공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곽진산 기자 jinsan@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탄소 발자국을 지우는 모두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ESG의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금융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겠습니다

BIG STEP FOR TOMORROW

QR코드를 찍어
래퍼 래원의
ESG 뮤직비디오를
감상해보세요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날렵한 얼굴에 세련된 실내… 차박도 '안성맞춤'

기아 첫 전용 전기차 'EV6' 실물로 만나보니

라디에이터 그릴 대신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로 역동성 더해
스탠더드 모델 기준 전장 4680㎜, 아이오닉5보다 45㎜ 길어
제로백 3.5초… 18분 만에 최대 80%까지 초고속 충전 가능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고성능 모델인 EV6 GT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단 3.5초 만에 돌파한다(왼쪽).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의 센터콘솔이 자리하고 있는 GT 라인 모델의 실내 모습.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멋지네".

기아의 첫 번째 전용 전기차 'EV6'는 아이오닉5와 다른 차원의 매력으로 무장한 차세대 전기차였다.

기아는 2일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마련한 전시 거점에서 EV6의 실물을 미디어에 처음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차량은 전시용으로 제작돼 양산차와 일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

EV6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바탕으로 제작한 기아의 첫 번째 모델이다. 사전계약 첫날에만 2만 1016대가 예약돼 연간 판매 목표를 뛰어넘을 정도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아이오닉5가 말끔하고 정숙한 느낌이라면, EV6는 당장에라도 달려나갈 듯한 역동적이다. 라디에이터 그릴을 대신하는 전면부의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는 주간 주행등(DRL)과 곡선으로 어우러지며 날렵함을 더한다. 방향지시등에는 '순차 점등 LED 턴 시그널'이 적용돼 입체적으로 춤추듯 점등된다.

EV6 스탠더드 모델의 길이(전장)는 4680㎜로 아이오닉5(4635㎜)보다 45㎜ 더 길다. 높이(전고)는 1550㎜로 아이오닉5보다 55㎜ 더 낮다. GT라인은 길이가 4695㎜로 스탠더드 모델보다 길다. 전체적으로 아이오닉5보다 앞뒤로 길고 높이는 낮아 더 날렵한 차체를 갖췄다. 후면부는 측면에서 시작한 LED 램프가 수평으로 길게 자리해 좌우 크기가 더 넓어 보이게 한다. 뒷유리에는 와이퍼가 없는 대신 공력을 이용해 물방울을 제거하는 기능이 더해졌다.

실내는 아이오닉5만큼 낯설지 않다. 내연기관차와 유사한 모습이 곳곳에 보인다. 아이오닉5가 '새로움'에 집중했다면, EV6는 '세련된 익숙함'을 택했다. 운전자를 중심으로 넓게 배치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최근 출시된 내연기관차에도 사용된 바 있다. 실내를 더 넓어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아이오닉5에 적용돼 화제가 된 카메라 기반의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EV6에 적용되지 않았다. 변속기도 또 다른 점이다. 아이오닉5는 스티어링 휠 뒤편에 칼럼식 변속기를 배치했다. 반면, EV6는 내연기관차에서 사용하던 원형 다이얼식 기어를 적용했다.

실내 공간은 2900㎜에 달하는 축간거리(휠베이스)를 바탕으로 넉넉하다. 성인 남성이 앉기에 머리와 다리 공간 모두 부족함이 없다. 트렁크도 520리터에 달한다. 2열 시트를 접으면 공간은 1300리터까지 늘어난다. '차박'에 훌륭한 조건이다.

EV6는 아이오닉5와 마찬가지로 400V/800V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을 갖췄다.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이용하면 18분 만에 10%에서 최대 80%까지 초고속 충전을 할 수 있다. 외부로 220V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V2L 기능을 갖춰 에너지 저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EV6 GT는 최고출력 584마력과 최대토크 75.5kg·m의 동력성능을 바탕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를 단 3.5초 만에 돌파한다. 한국 역사상 가장 빠른 기록이다. 21인치 전용 휠과 D컷 스티어링 휠, 스포츠 시트 등이 적용돼 고성능 모델 고유의 감성을 부각한다. 모델별 시작 판매가격은 △스탠더드 4000만 원대 후반 △롱 레인지 5000만 원대 중반 △GT 라인 5000만 원대로 예상된다.

글/사진=유창욱 기자 woogi@

효성티앤씨, 수영복 브랜드에 친환경 섬유 공급

효성티앤씨가 수영복 브랜드 데이즈데이즈에 친환경 재활용 섬유 '리젠(regen®)'과 스판덱스 섬유 '크레오라(creora®)'를 공급한다.

효성티앤씨는 3일 리젠과 크레오라 파워핏(creora® Power Fit)이 데이즈데이즈의 올해 '썸머 피크닉 콜렉션' 수영복과 원피스·랩스커트·블라우스 등 리조트웨어에 활용된다고 밝혔다. 리젠은 효성티앤씨가 버려진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친환경 폴리에스터 섬유다. 젊은 브랜드들과 협업하면서 MZ세대 가치 소비에 힘입어 전년보다 40% 이상 성장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효성티앤씨 친환경 섬유 리젠과 스판덱스 섬유 크레오라 파워핏이 들어간 수영복을 데이즈데이즈 모델들이 입고 있다.

의류 형태와 몸을 잡아주는 기능이 필수인 수영복 등에는 스판덱스 크레오라 파워핏이 쓰인다. 원단을 잡아주는 힘이 강해 착용감이 우수하고 착용자 몸매를 잡아주는 데 뛰어나다. 썸머 피크닉 컬렉션은 데이즈데이즈의 온라인몰과 이달 말 더현대, 갤러리아 명품관 West, 제주 그랜드 하얏트 호텔 등에서 열리는 시즌 팝업스토어에서 만날 수 있다.

김대영 기자 kdy@

포스코, 친환경 인재 영입 '가속페달'

포스코가 친환경 분야 인재 영입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확대한다. 오염물질 배출저감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친환경 사업 영역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3일 포스코는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일할 경력직 인재를 채용 중이다. 선발 인력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 및 실적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오는 6일까지 진행하는 채용 과정에서 제강과 전기로 기술 및 현장 관리 업무 경험자는 우대한다.

올해 들어 포스코는 친환경 분야 인재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산하 연구기관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은 지난 3월 친환경 연구 인력을 채용했다. 선발된 연구개발 인력 가운데 일부는 △수소 이송 매체(암모니아)와 △그린 수소 생산기술 개발 등에 배치한다.

포스코의 잇따른 친환경 인재 영입은 ESG 경영을 확대 실천하겠다는 의지다. 주력산업의 특성상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탓에 포스코의 이산화탄소 배출량(2019년 기준)은 8148만 톤에 달한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두산重, 수소가스터빈 개발 속도

두산중공업이 친환경 수소가스터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발전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발전용 국산 대형 수소가스터빈 개발과 실증을 위한 협약을 잇달아 체결했다.

두산중공업은 3일 울산광역시, 한국동서발전, SK가스 등과 수소가스터빈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수소가스터빈 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정지원 △한국동서발전은 국내 기술 기반 수소가스터빈 실증 △SK가스는 수소 공급 기반 구축 △두산중공업은 수소가스터빈 기술 개발 및 공급을 맡는다.

이주혜 기자 winjh@

삼성, 반도체 '탄소·물·폐기물 저감' 인증

글로벌 업계 최초 全사업장에 英 '트리플 스탠더드' 라벨 취득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업계 가운데 처음으로 전 사업장에 대해 '탄소·물·폐기물 저감' 인증을 받았다.

3일 삼성전자는 국내 5개(기흥·화성·평택·온양·천안), 미국 오스틴, 중국 3개(시안·쑤저우·톈진) 등 글로벌 총 9개 사업장이 영국 평가기관 '카본트러스트'의 '저감' 인증을 받고, 트리플 스탠더드(Triple Standard) 라벨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 라벨은 3년간 사업장의 △탄소 배출량 3.7% △물 사용량 2.2% △폐기물 배출량 2.1%를 줄이고, 각 분야의 경영체제에 대한 종합 평가 기준을 만족했음을 의미한다.

삼성전자는 2018년~2019년 각 생산공정에서 배출되는 평균량 대비 2020년 탄소, 물, 폐기물을 각각 9.6%, 7.8%, 4.1% 줄여 기준을 만족했다.

회사 관계자는 "반도체 제품의 미세화, 고집적화 추세에 따라 제조 공정이 더욱 복잡해지면서 물의 사용과 탄소, 폐기물의 배출도 함께 늘어났다"라며 "반도체 전 사업장에서 물 사용량과 탄소,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카본 트러스트의 '트리플 스탠더드' 이미지.

탄소 부문에선 2019년 미국, 중국 등 해외 반도체 사업장에 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구매해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했다. 국내 사업장은 태양광, 지열 발전 시설을 설치해 일부 사무실에서 전력으로 사용 중이다. 또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온실가스 사용량을 최적화했다. 온실가스 저감 장치에 들어가는 새로운 촉매를 개발하는 등 탄소 저감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생산량 기준으로 약 130만 톤의 탄소 배출량을 줄였다. 이는 서울시 2배 면적에 해당하는 소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다.

멤브레인(필터) 기술을 활용한 폐수 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물 재사용량을 높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삼성전자 반도체 전 사업장의 2020년 물 재이용량은 약 7000만 톤에 달한다. 2018~2019년 재사용량과 비교해 약 12%가 늘었다.

삼성전자 DS 부문 지속가능 경영사무국 장성대 전무는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탄소, 물, 폐기물 분야에서 수십 년간 여러모로 노력해왔으며 사업장 경영지표로 관리해왔다"라며, "초미세 공정 기반 저전력 반도체, 친환경 수처리를 통한 지역 생태계 복원, 온실가스 저감 설비 개발 등으로 반도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우리 기자 we1228@

자동차산업協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 연장해야"

"탄소 중립 정책 등 현실적 대안"

자동차 업계가 안정적인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 감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하이브리드차 보급 필요성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2050 탄소 중립 정책의 현실적 대안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에 대한 정부지원은 지난 2017년 총 383만 원에서 단계적으로 줄었다. 매년 50만 원씩 감소해 올해는 지원이 183만 원에 머물렀다.

이처럼 정부가 구매 보조금을 축소하는 중에도 하이브리드에 대한 인기는 상승 중이다. 특히 RV는 지난해 디젤 비율이 41.2%로 전년(50.1%) 대비 8.9% 포인트 감소했지만, 하이브리드의 비율은 3.9%에서 8.1%로 4.2% 포인트 증가했다.

결국, 하이브리드에 대한 시장의 구매력이 지속 상승 중인 가운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감소하면 구매력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KAMA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정부가 추진 중인 탄소 중립 및 미세먼지 감축 정책의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 생산부터 운행, 폐차까지 생애 전주기를 따졌을 때 하이브리드는 27.5t CO_2-eq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반면, 전기차(80kWh급)는 배터리 제조 및 재활용 방법에 따라 최대 28.2 t CO_2-eq의 배출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더 친환경적이라는 의미다. CO_2-eq란 이산화탄소(CO_2) 배출량에 '지구온난화지수(GWP)'를 대입한 수치다.

물론 에너지 발전 원료의 다양화에 따라 전기차의 친환경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2030년까지 원료 다양화에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이 과도기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활성화가 절실하다"라는 게 협회의 분석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김영준 "매그나칩 매각, 원칙적으로 美 규제 대상 아냐"

CFIUS, 미국 내 자산보유 기업 심의… 매그나칩은 한국에 있어
기술유출 의혹엔 "사모펀드가 기술만 빼먹으려 했다면 불가능"

"매그나칩반도체의 지향점은 한국 기업도, 미국 기업도 아닌 '글로벌 기업'이다. 이를 위해선 적기 투자와 고객사 확대가 필수적이다. 매그나칩에 이번 매각이 중요한 이유다."

김영준 매그나칩 대표이사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3월 중국계 사모펀드(PEF) 매각을 발표한 이후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기술 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추측일 뿐"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매그나칩 매각은 최근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검토 결정이라는 중대한 암초를 만났다.

CFIUS는 국가 안보와 관련해 미국 내 외국인 투자현황을 분석·검토하는 기관으로, 중국 자본과 관련된 인수·합병(M&A)을 다수 무산시킨 전력이 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매그나칩이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구동칩(OLED DDI)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에 포함되는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규제 당국도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는 이번 매각 건이 미·중 반도체 패권 갈등 한복판에 서게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원칙적으로 이번 매각 건은 CFIUS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당 기관은 미국 내 '자산'을 가진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심의하는데, 매그나칩의 경우 주요 부지부터 공장, 인적 자산 등이 모두 한국에 있기 때문이다.

거듭된 해명에도 지속하고 있는 기술유출 우려를 놓고는 "답답하다"라고 했다. 인수 주체인 와이즈로드캐피털의 본사가 중국 베이징에 있긴 하지만, 돈을 대는 주요 출자자(LP)엔 중국 자본이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수 목적이 애초 '엑시트'(기업 가치를 키운 뒤 재매각이나 상장해 이익을 실현하는 것)에 있는 사모펀드가 기술을 빼돌려 기업을 망하게 할 리도 없다고 했다.

김영준 매그나칩반도체 대표이사가 2일 이투데이와 만나 중국계 사모펀드 매각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매그나칩반도체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에서 떨어져 나온 이후 회사 성장 과정 자체가 이를 증명한다고도 덧붙였다. 매그나칩은 2004년 하이닉스반도체가 시스템반도체 사업부를 미국계 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만들어졌다.

주력 사업인 디스플레이 구동칩과 전력반도체 분야에 뛰어든 때도 사모펀드 인수 이후 시점이다.

김 대표는 "현재 매그나칩엔 2004년 이전 사업부는 하나도 안 남아있다"라며 "사모펀드에 매각된 이후 지식재산권(IP)과 제품 개발이 이뤄졌다. 사모펀드가 기술만 '빼먹으려고' 했다면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인수 주체인 와이즈로드캐피털도 정치권과 업계에서 불거진 기술 유출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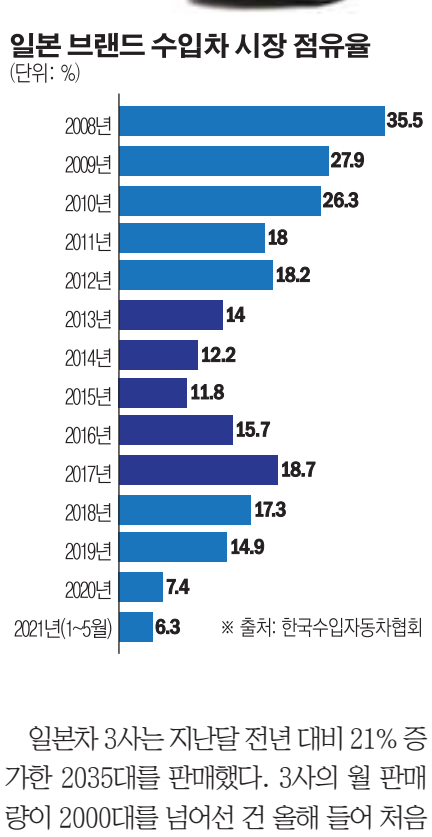
최근 매각 관련 공식 문서에서 "경영진과 임직원은 물론, 생산시설·IP를 한국에 유지할 것을 '보장(guarantee)'한다"라는 강한 어조의 표현을 이례적으로 쓴 것도 이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이번 매각이 매그나칩이 글로벌 기업으로 올라설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아시아 팹리스기업 40위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5년 내 20위권으로 올라서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노우리 기자 we1228@

닛산, 한국 시장 철수선언 1년 일본車 점유율 '6%대'로 추락

2008년 35%까지 올랐지만 수출규제·불매운동 등 여파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닛산이 한국 시장 철수를 선언한 지 1년이 지났다. 한때 수입차 시장 35%를 차지하던 일본차는 불매운동과 브랜드 철수 여파로 점유율이 6%까지 줄어들었다.

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발표치와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해 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판매된 일본차는 7702대에 그쳤다.

전체 수입차 시장 점유율 6.3% 수준. 줄곧 점유율 10% 이상을 지켜온 예년과 비교해 낮은 수치다.

2008년 한 해 동안 일본차는 2만1912대가 팔리며 전체 수입차 시장 점유율 35%를 차지했다. 2010년대에 들어서도 연간 4만 대 이상을 판매하며 수입차 시장의 한 축을 담당했다.

그러나 2019년 7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불매운동 여파로 상황이 달라졌다.

불매운동 이전인 2019년 6월까지만 해도 4000대 가까운 차를 판매한 일본차 5개 브랜드(토요타·렉서스·닛산·인피니티·혼다)는 불매운동이 시작된 뒤 반 토막 난 월 판매 실적을 받아들었다.

1년 넘게 불매 운동 여파가 지속하자 결국 닛산은 지난해 5월 한국 시장 철수를 결정했다.

한국닛산은 철수 결정 이후 재고가 남은 알티마, 맥시마, QX50, QX60, Q60 등 5개 차종을 할인해 판매했다.

닛산은 지난해 6월, 인피니티는 9월에 모든 재고를 소진했다.

전체 수입차 시장에서 차지하던 비중은 2019년 14.9%에 이어 2020년 7.4%까지 떨어졌고, 올해 5월까지는 점유율이 6%대로 낮아졌다.

다만, 최근 들어선 토요타와 렉서스, 혼다가 신차 효과에 힘입어 지난해 대비 개선된 판매 실적을 거두고 있다.

일본 브랜드 수입차 시장 점유율
(단위: %)

※ 출처: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일본차 3사는 지난달 전년 대비 21% 증가한 2035대를 판매했다. 3사의 월 판매량이 2000대를 넘어선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전체 수입차 시장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호황을 이어갔다. 지난달 판매된 수입차는 2만4080대로 전년보다 3.5% 증가했다. 1~5월 누적 판매량은 20% 늘어난 12만1566대로 집계됐다.

지난달에도 메르세데스-벤츠가 7690대를 판매하며 브랜드 판매량 1위를 유지했다. 이어 △BMW 6257대 △폭스바겐 1358대 △볼보 1264대 △지프 1110대 순이었다.

상위권을 유지하던 아우디는 인증 관련 문제로 출고가 지연되며 지난달 229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은 메르세데스-벤츠 E 250으로 1257대가 판매됐다. 2위는 BMW 520(873대), 3위는 폭스바겐 제타 1.4 TSI(759대)로 나타났다.

유창욱 기자 woogi@

LG유플러스 "알뜰폰 시장서 존재감 키우겠다"

'알뜰폰 파트너스 2.0' 발표

중소 파트너사와 '상생' 방점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1만원대

3사 중 '후불 가입자' 매출 많아

KB국민카드와 할인카드 협력

강진욱(왼쪽부터) LG유플러스 MVNO사업담당, 박준동 제휴사업그룹장, 박재술 MVNO영업1팀 팀장이 3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U+알뜰폰 파트너스 2.0'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이동통신(MNO) 시장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알뜰폰(MVNO) 시장을 공략하며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시장에서 가입자당 매출액 1위 사업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소 알뜰폰 사업자 지원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일 LG유플러스는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U+알뜰폰 파트너스 2.0'를 발표했다. 2019년 9월 선보인 'U+알뜰폰 파트너스'에서 한 단계 진화하겠다는 목표다. U+알뜰폰 파트너스는 LG유플러스가 자사 통신망을 사용하는 중소 알뜰폰 업체들을 모아 만든 공동 브랜드 및 파트너십 프로그램 그룹이다. 프로그램 시행 1년 여 사이 파트너스 참여사의 누적 가입자는 192% 늘었다는 설명이다.

'U+알뜰폰 파트너스 1.0'이 사업자들과의 상생에 방점을 찍었다면, 2.0은 고객 중심으로 혜택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알뜰폰 고객도 LG유플러스의 '찐팬'으로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동시에 현재 26개인 파트너사를 연말까지 3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무상 데이터 월 150GB 제공= LG유플러스는 △고객 중심 상품 혁신 △고객 이용 편의 증대 △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먼저 상품 혁신으로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을 마련했다. 파트너스 참여사들의 기존 가입자 및 신규 가입자에게 최대 월 150GB의 데이터를 24개월 동안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한다. 데이터가 무료로 제공되는 요금제는 총 4가지로, 요금제에 따라 150GB/50GB/10GB의 데이터가 증정된다.

알뜰폰 사업자는 추가 데이터를 앞세운 요금제 출시로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고, 기존 가입자의 이탈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월 1만8700원에 데이터 11GB(매일 2GB 추가, 전화·문자 기본제공)를 이용하는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매월 150GB를 추가로 받아 총 221GB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사실상 1만 원대로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셈이다.

KB국민카드와 제휴해 알뜰폰 전용 할인카드도 선보인다. 고객이 'KB알뜰폰 HUB2카드'를 발급받고, 파트너사가 판매하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24개월간 매월 최대 2만99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단, 전월 카드 실적이 7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외에도 LG유플러스는 알뜰폰 고객의 요금납부나 이용 정지 등 CS를 처리하는 매장을 기존 190여 개에서 500여 개로 확대한다. 추후 전국 2000여 개 매장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대형 알뜰폰 사업자에게만 국한됐던 '셀프 개통'도 확대된다. 현재 파트너스 참여사 중 셀프 개통을 지원하는 알뜰폰은 5곳에 불과하지만, 연내 12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후불 가입자 확대로 가입자당 매출액 3사 중 1위=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시장의 '3위 사업자'라는 꼬리표를 알뜰폰 시장에서만큼은 지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가입자당 매출액 1위'를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의지에서 비롯했다.

강진욱 LG유플러스 MVNO 사업 담당은 "LG유플러스가 알뜰폰 사업에 가장 적극적"이라며 "MNO에서 MVNO로 가입자가 이동하며 매출액이 줄어드는 부분은 경쟁사 고객을 유치하면서 만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망 도매 매출액에 관해 "이통 3사 중 저희의 (가입자 당) 망 매출액이 가장 크다"고 했다. 강 담당은 지난해에 2019년 대비 500억 원가량 망 도매 매출액이 늘었고, 올해도 전년 대비 7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3사 중 가입자 당 매출액이 가장 높은 배경으로는 '후불 가입자 비중'이 꼽힌다. 타사와 달리 LG유플러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후불 가입자 유치 비율이 높다. 구체적으로 LG유플러스 파트너스사의 후불 판매량 비중은 2019년 말 18%에서 올해 1분기 기준 51%로 늘어났다. 강 담당은 "작년 코로나19로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아 후불로 전환하자는 공감대가 있었고, 후불 비중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이미 MVNO 시장에서 2위 사업자로 올라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KT망 사용 가입자가 502만4313명, LG유플러스 223만2002명, SKT 219만4395명 순으로 나타나 SKT를 제쳤다. 이 같은 성장세를 계속 확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박준동 LG유플러스 제휴사업그룹장(상무)은 "가입자 수에 연연하지 않고, 도매 대가 매출액을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다"며 "상생프로그램으로 이통사와 알뜰폰이 서로 견인하게 해 올해 말과 내년 초에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성인 생활영어 배우기, 쉽고 빠르게 듣는 게 중요"

인터뷰

박영진 진짜녀석들 대표

암기 의존 줄이고 상황 익혀야

면접·연애 등 콘텐츠 2만 개

관심 많은 내용 선택해서 학습

수강패턴 분석 '복습 AI' 지원

"성인 영어는 관심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필요한 주제만 쉽고 빠르게 듣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고 나서 차근차근 영어를 익히는 폭이 넓어지면, 영어 말하기 실력은 일취월장할 수 있습니다."

박영진〈사진〉 진짜녀석들 대표이사는 3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본사에서 가진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성인들이 생활 영어를 손쉽게 배우도록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창업 5년 차인 진짜녀석들은 영어 인터넷 강의 서비스 및 콘텐츠 공급업체다. 박 대표는 진짜녀석들의 대표 강사이자 소유주이며 브랜드를 이끄는 리더다.

창업의 계기는 단순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친구처럼 지내온 아버지로부터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중 잘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한다. 뉴질랜드 교포(중학교 2학년 때 비밀)였던 박 대표는 호텔, 금융업계를 거쳐 영어 강사에 이른다. 특히 애초 강사 생활은 기업체 출강을 통한 아르바이트 성격을 가져 왔으나, 가르치는 것이 천직이라는 판단하에 교육계에 입문했다.

박 대표는 "총 16년의 강사생활로 초·중·고·성인 등을 가르쳤다"며 "지속해서 드는 의문점은 성인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투자된 시간 대비 늘어나지 않는 영어 실력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론은 듣고 싶은 영어를 선택적으로 배우는 것"이라며 "진짜녀석들은 면접·밤문화·연애 등 2만 개 넘는 다양한 콘텐츠를 실력 있는 수많은 강사가 제작해 학습자가 원하는 영어를 골라 들을 수 있는 더욱 더 쉬운 접근법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어 학습을 취향에 의존하라고 조언한다. 한국인은 영어에 많이 노출되지만 학습 면에선 지나치게 암기에 의존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단어, 문법, 패턴 등 영어와 관련한 지식은 배우고 써먹지 못하면 기억에서 사라진다. 진짜녀석들은 본인이 원하는 취향의 영어를 지속적으로 접하는 것을 학습의 팁으로 제시한다. 또한 다양한 상황 학습이 중요하다고 꼽는다.

콘텐츠의 다양함도 중요하지만, 학습자의 성향에 맞는 강사의 선택도 중요하다. 현재 진짜녀석들 콘텐츠는 전문 영어 강사는 물론,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촬영하고 있다.

박 대표는 "이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며, 영어 학습의 흥미를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며 "수만 개 영상들 중 클릭 한 번만으로 자신이 궁금한 내용이 자동 큐레이션으로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영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강생 복습을 인공지능(AI)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진짜녀석들의 AI 학습 프로그램은 머신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학습자의 수강 패턴 분석 최적의 학습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딥러닝과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강의 영상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내부에선 최소한의 시간에 최상의 효율로 복습할 수 있도록 자동 완성된 영상을 제공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고종민 기자 kjm@

SK에코플랜트, 중기부 네 번째 '자상한기업2.0' 선정

친환경·스마트 분야 육성

SK에코플랜트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자상한기업2.0'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SK에코플랜트는 친환경·스마트 분야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선도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게 됐다.

중기부는 SK에코플랜트와 '상생 오픈 플랫폼을 통한 친환경·스마트 분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에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등도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ESG·한국판뉴딜·탄소중립, 코로나19 조기 극복 등 시의성 있는 중점분야의 기업을 미리 선정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의 입체적 연결로 새롭게 추진하는 '자상한 기업 2.0'의 네 번째 협약이다.

SK에코플랜트는 최근 건설업을 넘어 연결의 리더십을 발휘해 ESG를 선도하는 '아시아 대표 환경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SK건설에서 사명을 변경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SK에코플랜트는 회사와 협력사의 기술혁신을 위한 기술 수요 발굴 프로그램을 상시 진행하고, 발굴된 기술에 대해 협력사와 스타트업에게 전문상담(컨설팅)과 공동 기술개발 등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개발된 제품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시범 구매를 추진해 실제 프로젝트에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1200억 원 규모의 자체 펀드를 통해 투자도 진행한다.

개방형 사무공간을 위한 '스페이스 오픈 플랫폼'도 구축한다. 협업기관과 SK에코플랜트가 보유한 공간을 협력사와 스타트업에 개방형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

안재현 SK에코플랜트 사장은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으로서 친환경·스마트 분야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기술상업화 전 주기를 지원하겠다"며 "공정거래 자율 준수를 통해 중소기업과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고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상황에 친환경·스마트 분야 혁신기업들이 SK에코플랜트와의 협업을 통해 많은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ESG·한국판뉴딜·탄소중립 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입체적 연결을 통해서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박주형(오른쪽) 유진홈센터 상무와 세버린 마티유 이케아코리아 커스터머 풀필먼트 총괄자가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제공 유진홈센터

유진 계열사 에이스 하드웨어

이케아 인테리어 설치 서비스

유진그룹 계열 유진홈센터의 집수리 전문 브랜드 '에이스 하드웨어'가 이케아와 손을 잡았다. 인테리어 설치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다.

유진홈센터는 3일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이케아 코리아 본사에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욕실, 주방 설치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에이스 하드웨어는 이케아 주방 및 욕실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욕실, 주방, 중문 설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미 갖고 있는 노하우와 전문 설치 인력을 활용한다.

이케아 욕실 설치 서비스는 에이스 하드웨어에서 독점으로 운영한다. 이케아에서 취급하지 않는 양변기, 욕조, 파티션, 타일 등 일부 품목은 에이스 하드웨어에서 구매할 수도 있다. 서비스 지역은 서울, 경기, 충청, 부산, 경남 지역이다.

또한 주방 설치 서비스는 이케아 광명점과 이케아 플래닝 스튜디오 신도림점, 천호점을 이용하는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선보인다.

설치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이케아 매장에 플래닝을 신청한 후 해당 컨설턴트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에이스 하드웨어 관계자는 "믿을 수 있는 에이스 하드웨어 설치 서비스와 가성비 높은 이케아 제품으로 완벽한 홈 인테리어를 완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남혐 논란·파오차이 표기’ 바람 잘 날 없는 유통가

GS25, 볶음밥 재료에 파오차이
젠더이슈 GS25 디자이너 징계
올림픽 독도 논란에 노재팬 2R
유니클로·일본맥주 ‘불매’ 타깃

반일·반중 논란에 젠더 이슈까지 겹치며 유통가에 바람 잘 날이 없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로 ‘노재팬’ 운동이 확산되며 불매 운동이 자리잡았고, 최근에는 소위 ‘집게 손가락’ 논란으로 젠더 이슈가 화제가 됐다. 여기에 김치의 파오차이 병기 논란까지 가세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며 노재팬 2탄까지 우려해야할 처지다.

GS25 자체 브랜드 상품 ‘스팸 계란 김치볶음밥’에 김치가 파오차이(泡菜)로 표기돼 있다.

◇높아진 반중 감정… 김치가 파오차이?=유통업계서 김치의 파오차이 표기 논란이 일고 있다. GS25가 판매 중인 자체 브랜드 상품 ‘스팸 계란 김치볶음밥’에 김치를 중국어로는 파오차이(泡菜)로 표기한 것이 알려지면서다. 이어 세븐일레븐의 삼각 김밥 일부와 김밥으로 불똥이 튀었다. 해당 상품 포장지에는 중국식 절임채소를 의미하는 파오차이가 표기됐다.

GS25와 세븐일레븐은 곧바로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했다. GS25 관계자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상품 라벨에 영어와 일어, 중국어 제품명을 병기했었다”고 해명했다.

파오차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에는 이마트 제주점에서 김치 진열대에 김치와 파오차이를 병기해 논란이 일었다.

◇올림픽 독도 논란에 ‘노재팬’ 우려=기존의 불매 운동은 주로 반일인 노재팬이 대부분이었다. 욱일기와 독도 논란이 주를 이루다가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직후에는 대대적인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번졌다. 대표적인 것은 의류 기업인 유니클로 불매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소비자를 지켜보는 ‘감시단’까지 꾸려졌다. 결국 명동점과 강남점과 홍대점 등 주요 상권의 매장이 문을 닫았다.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5747억 원으로 직전년도에 비해 41% 떨어졌고, 영업손실도 129억 원으로 7배 커졌다.

일본 맥주도 직격탄을 맞았다. 아사히 맥주를 수입하는 롯데아사히주류의 지난해 매출은 173억 원으로 전년보다 72.2% 줄고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도쿄올림픽을 추진하는 일본 측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성화봉송 코스를 소개하며 시나메현 위쪽에 작은 점을 찍어 독도를 마치 일본 땅인 것처럼 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골프 대표팀의 유니폼은 욱일기 문양이 지적되기도 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일본 지도가) 개정이 안 되면 국민 동의를 받아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맞서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항의에도 일본 정부는 전날 “수용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6월은 통상 맥주 성수기인데 일본 이슈로 분위기를 보고 있다”면서 “일본 맥주를 국내 수제 맥주가 빈 자리를 채운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집게 손가락’ GS25, 디자이너 징계=젠더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달 1일 GS25는 캠핑용 식품 판매 포스터의 손가락 모양에 대해 여성 중심 커뮤니티 메갈리아 등에서 한국 남성의 성기를 비하할 때 쓰는 것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불매 움직임이 일었다.

젠더 이슈 직후 등장했던 ‘GS리테일의 군부대 PX 계약을 전면 철회해주십시요’란 청와대 청원 동의는 현재 10만 명을 넘어섰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불매 인증샷이 쏟아지고 있다.

여파는 BBQ와 무신사, CU 등에도 번졌다. BBQ는 홈페이지의 사이드 메뉴 ‘소떡’ 이미지는 손으로 구워진 소세지를 집고 모습이 남혐 커뮤니티 메갈리아의 손모양이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았었고, 무신사도 카드사와의 협업을 홍보하는 포스터 속의 손모양이 의심스럽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GS25는 조윤성 사장을 편의점 사업에서 손 떼게하고, 플랫폼BU장으로 총괄 업무만 담당시켰다. 이어 마케팅 팀장을 보직 해임하고 관련 디자이너를 징계했지만 관련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오픈서베이가 최근 실시한 소비자 신뢰도 조사 결과 주로 이용하는 편의점 항목에서 GS25는 지난해 조사에 비해 2.7%포인트 떨어졌다. 신뢰성도 13.8%포인트 내렸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자고 일어나면 이슈가 더해져 있다. 반일에 이어 젠더 논란, 반중 정서까지 나타나며 소비자의 취향 맞추기가 여간 까다로워진 게 아니다”면서 “내부 단속과 마케팅에 더욱 신중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必마스크 시대’ 기능 넘어 패션으로

쌍방울 김수현 모델 패션마스크
브레스실버 BTS 캐릭터 컬래버

백신 접종이 본격화했지만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가운데 마스크 제조사들이 보다 다양한 마스크로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마스크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을 통해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 및 품목허가수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기준 마스크 제조업체 수는 1568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지던 지난해 1월(137개)과 비교해 대폭 증가했다.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마스크 품목도 총 6237개에 달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변이 바이러스 및 면역 항체 생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면서 업계는 여전히 마스크 사업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미세먼지 등으로 마스크 수요가 커지자 2019년부터 관련 사업에 뛰어든 쌍방울그룹은 현재 KF94 보건용 마스크 외에 KF-AD 비말차단 마스크, 패션 마스크 등 제품군을 다양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모델 김수현을 앞세운 ‘트라이 케이시크릿 패션마스크’를선보이며 라이브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쌍방울은 지난해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 절반을 마스크 관련 시설에 투자했고 그 해 8월 지오영과 708억 원 규모의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마스크 사업을 꾸준히 준비해왔다.

프리미엄 마스크 브랜드 ‘브레스실버’는 ‘브레스 타이니탄 스포츠 프로’의 유럽 CE 인증을 받고 현지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유럽 CE 인증은 안전, 건강, 환경,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유럽연합(EU)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의 통합규격 인증마크다. 방탄소년단 캐릭터 ‘타이니탄’과 컬래버레이션한 브레스 타이니탄 컬렉션은 아마존에 이어 동남아 최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 쇼피에 입점하는 등 활발한 해외 진출을 진행 중이다.

닥터스마일케이는 피부 저자극 마스크를 콘셉트로 삼은 ‘닥터스마일케이 KF94 프레시 마스크’를 출시했다.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피부 트러블을 호소하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탄생했다. 피부 저자극 원단, 써멀본드 원단을 안감으로 사용해 부드럽고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코디는 최근 어린이를 겨냥해 키즈 전용 마스크 ‘코디 귀가 편한 끈조절 키즈 생활안심 마스크(KF-80)’와 ‘코디 비말 차단 키즈 생활안심 마스크(KF-AD)’를 새롭게 출시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친환경 상품 사면 에코백·적립금 드려요”

환경의 날 프로모션 잇따라
에코머니 적립·사은품 증정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유통업계가 친환경 상품을 판매하고 에코백을 증정하는 등 각종 친환경 프로모션이 한창이다. 환경 보호 행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도 맞닿아 있다.

이마트는 환경의 날을 기념해 환경부와 협업해 혜택을 대폭 높인 단독 행사를 진행하고 친환경 소비 촉진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마트와 트레이더스에서 판매하는 2000여 개의 신선·가공·생활·주방용품 등 친환경 인증 상품을 ‘그린카드’ 또는 ‘에코머니’ 로고가 있는 카드로 구매할 시, ‘에코머니’를 기존 대비 10배 적립하는 ‘그린 장보기’ 행사를 30일까지 진행한다.

3일 이마트 성수점에서 모델들이 ‘그린 장보기’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는 환경의 날을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그린 장보기’ 행사를 통해 친환경 소비 촉진에 나선다. 사진제공 이마트

친환경 캠페인 ‘이마트 투모로우 캠페인’도 다양한 고객 참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일상에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줍깅(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동)’ 캠페인을 진행해 종이 영수증 절감량 누적 1억 건을 돌파한 기념으로 고객 동참 행사도 전개한다.

롯데마트는 16일까지 재활용 가능한 장바구니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2월 첫 선을 보인 무(無) 플라스틱 캡 세제 ‘무궁화 친환경세제’를 1만 원 이상 구입한 고객에게 ‘같이가요 장바구니’를 증정하는 행사다.

롯데온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착한소비 기획전’도 진행하고 있다.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상품’,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회공헌 상품’, 높은 수준의 기준을 맞춘 ‘동물복지 상품’, 공유가치를 창출해 지역사회를 살리는 ‘캡슐커피’ 등 4가지 테마로 나눠 19개 파트너사 200여 개 상품을 소개한다.

신세계백화점은 4일부터 전 점에서 조선호텔과 협업한 에코백 2000개를 증정하고, 11일부터는 환경 보호의 의미를 담은 재사용 플로깅백 2000여 개도 사은품으로 선보여 환경 소비 문화 조성에 나선다. 플로깅이란 ‘주워 모은다’는 뜻의 스웨덴어 ‘플로카 웁(plocka upp)’과 달리기(jogging)을 결합한 단어다.

신세계백화점은 앱을 통해 전자영수증 발급 신청을 한 고객 대상으로 조선호텔 침구 에코백과 플로깅백을 증정, 종이 없는 친환경 쇼핑 문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당일 5만 원 이상 구매 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세계와 친환경 브랜드 ‘레미투미’가 협업한 반려동물 전용 방석을 4일부터 10일까지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8일까지 식품 전문 온라인몰 ‘현대식품관 투홈’에서 무항생제 한우와 돼지고기, 동물복지 닭고기 등 34종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10% 할인해 판매하는 ‘자연친화 축산물 기획전’을 진행한다.

GS홈쇼핑은 1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 컵을 활용하는 캠페인을 펼친다. 개인별로 1개 이상의 머그컵을 준비하고 개인 머그컵을 활용해 사내 커피숍에서 커피를 구매하면 가격30%를 할인해준다.

남주현 기자 jooh@

“올여름 휴가 ‘홈캉스’ 어때요”

롯데百 가구·침구 등 ‘리빙페어’

유통업계가 본격적인 휴가철 마케팅에 들어간다.

롯데백화점은 4일부터 13일까지 본점, 잠실점 등 서울 지역 12개 점포에서 ‘롯데 리빙페어’를 열고 가구, 침구, 주방/식기 등 약 80여종의 리빙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북적이는 인파를 피해 올해 휴가는 홈캉스(집에서 즐기는 바캉스)로 계획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롯데백화점은 여름철 홈캉스족을 위한 30억 원 물량 규모의 리빙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행사에는 다우닝, 휘슬러, 필립스, 알레르망, 빌레로이앤보흐 등 78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총 80여 종의 제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대표 상품으로는 침실 분위기를 바꿔주는 동시에 위생, 건강까지 고려한 침구류를 준비했다. 각종 미세먼지 및 진드기 등을 차단해주는 기능성 침구 브랜드로 유명한 ‘알레르망’의 브레너 모달 차렵 세트를 싱글 사이즈 22만9000원에 판매한다.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시켜주는 상품도 있다. 가죽소파로 유명한 가구 브랜드 ‘다우닝’에서는 인체에 알맞은 각도로 디자인된 1인 리클라이너(알파211)를

109만 원에 판매하고, 나무, 숲 등 자연의 향을 담은 아로마 오일과 디퓨저로 유명한 미국 향유 브랜드 ‘대니맥켄지’의 사각 메디캔들(8oz)+USB 전기라이터 세트를 6만 원에 할인 판매한다.

‘홈카페’ 트렌드에 적합한 식기류, 주방가전 등의 제품도 마련했다.

독일 식기 브랜드 ‘빌레로이앤보흐’의 뉴웨이브 카페 머그(2P)를 5만7000원에, 독일 프리미엄 주방용품 브랜드 ‘휘슬러’의 클래식 엣지 쿡탑(3구)을 120만 원에 판매한다.

올 여름 홈캉스를 준비하는 소비자들 사이에 가사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편리미엄’(편리함+프리미엄의합성어) 가전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가전 행사도 선보인다.

7일부터 13일까지 백화점 전점에서는 편리미엄 가전 대표 품목인 로봇청소기, 식기세척기, 건조기 등 총 8가지 가전 품목들을 제안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지배구조 개편·성장성 확보 '기업 쪼개기' 러시

SKT, 11일 회사분할 안건 확정
통신 분리, 반도체 등 투자 매력↑
오스템, 지주사·사업회사 쪼개기
LG화학 '배터리 사업' 연내 상장

소문난 맛집에는 공통점이 있다. 메뉴가 딱 하나이거나 한 분야만 고집한다는 것이다. 요리사 한 명이 한식, 일식, 중식 등 다양한 요리를 산만하게 만들다 보면 맛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요즘 기업 경영 트렌드도 비슷한 행보를 보인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던' 시대는 갔다. 몸집 불리기에 전념하던 기업들이 이제는 '쪼개기'를 통한 선택과 집중에 나서기 시작했다. 기업마다 속내는 제각각이다.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곳과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기업이 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르면 11일 이사회를 열고, 지배구조 개편안을 확정한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인프라를 맡는 'SKT 존속회사'와 정보통신기술(ICT) 투자 전문회사인 'SKT 신설회사'로 인적 분할키로 했다. 존속회사는 기존의 통신사업을 하면서 자회사로 SK브로드밴드 등을 두며, 신설회사는 자회사로 SK하이닉스·ADT캡스·11번가·티맵모빌리티 등 ICT 계열사를 둔다. 회사 측은 "통신이라는 업종에 가려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우산'이 필요했다"며 "회사 분할은 미래 성장을 가속하고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이번 분할을 통해 SK하이닉스의 투자나 인수합병(M&A) 때 제약 요소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SK텔레콤의 분할 이후 합산 가치를 28조 5000억 원으로 추정한다"면서 "안정적인 배당을 선호하는 투자자와 반도체, 콘텐츠, 모빌리티, 보안 등 성장성을 선호하는 투자자가 모두 원하는 곳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평가했다.

올해가 지배구조 개편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이기도 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새로 설립되는 지주사가 자회사 지분을 최소 30%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재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지분은 20.07%뿐이다. 올해 안에 지배구조 개편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 지분을 10% 가까이 추가로 사야 한다. 지분 추가 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현재 시가 기준 9조 원이 넘는다.

기업들이 지배구조개편과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 쪼개기를 하는 셈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표면적인 이유는 내년 달라지는 공정거래법이 기업들을 채찍질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한 기업에 다양한 분야가 있으면 한정된 재원을 어느 사업부문에 투자할 것인가를 따로 논의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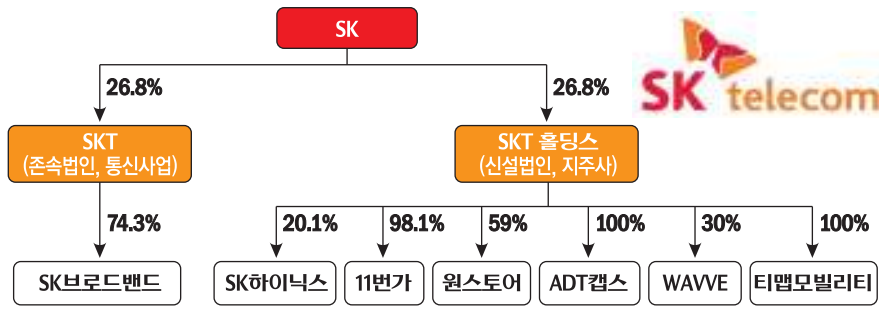
F&F, 에코프로, 오스템임플란트 등 '인적분할-주식교환(현물출자)'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곳도 있다. 이들은 올해 안에 주식교환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말이면 지주사 전환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인적분할한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특례를 2022년부터 중단키로 했다. 국내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판매시장에서 1위를 달리는 오스템임플란트도 회사를 쪼갠다. 투자회사인 오스템홀딩스(가칭)와 사업회사인 오스템임플란트(가칭)로 인적분할하는 방식이다. 분할 존속회사는 지주사인 오스템홀딩스이며, 분할 신설회사는 오스템임플란트이다. 분할기일은 오는 9월 1일이다. MLB, 디스커버리 등 메가 패션 브랜드를 보유한 F&F와 배터리 양극재 세계 2위 에코프로도 인적분할해 지주사로 전환했다.

계열 분리가 목적인 곳도 있다. LX홀딩스는 LG그룹을 승계한 구광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구본준 회장이 계열사를 나눠 독립했다. 순수 지주회사로 LG상사, LG하우시스, LG MMA, 실리콘웍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구본준 회장과 송치호 전 LG상사 대표가 초대 대표이사를 맡는다.

사업 경쟁력 강화 차원인 곳도 있다. LG화학이다. LG화학은 올해 전지사업 부문인 LG 에너지솔루션을 물적분할해 설립했다. LG화은 물적분할한 배터리 사업부인 LG에너지솔루션을 올 하반기에 상장시킬 예정이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의 경우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 LG전자와 마그나의 전기차 파워트레인 합작 법인 설립 등 주력 사업 강화 위한 사업 구조 개편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eom@

SKT, 내년 지주사 요건 강화 전 분할 추진 ※지주사가 자회사 지분을 최소 30%까지 확보



※사업회사는 따로 분할

조세 특례 일몰에 따라 지주사 전환 기업

F&F	패션	에코프로	배터리 양극재	오스템임플란트	의료기기

※조세 특례: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유증 이후 대한항공 '미소' 한화솔루션 '쓴맛'

연초 증자 참여 수익률 극과 극

연초 비슷한 시기에 유상증자했던 한화솔루션과 대한항공의 희비가 엇갈렸다. 특히 한화솔루션은 업황 분위기가 가장 좋을 때, 대한항공은 가장 안 좋을 때 유상증자를 단행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주주들은 75% 이상 수익을 냈지만 한화솔루션 주주는 평가 손실을 입고 있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주식을 추가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가 추가 발행하는 주식은 투자자에게 기존 주식 대비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 이때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은 기존 주주는 일정 비율에 따라 받은 신주인수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신주인수권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 기존 주주가 아니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다면 신주인수권을 사면 된다.

3일 대한항공은 전 거래일보다 0.45% 하락한 3만3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23.5% 상승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해외여행 정상화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은 75.4%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지난 3월 4일 주당 1만 9100원의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시행했다. 쌓인 채무를 갚고,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대한항공은 주당 0.79 비율로 기존 주주들에게 '대한항공 46R'이란 신주인수권을 부여했다. 1월 26일을 기준으로 100주를 보유한 주주였다면 약 79주의 신주인수권이 주어졌다. 당시 대한항공의 주가는 2만8000원 수준에서 거래됐다.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은 기존 보유 주식의 주가 상승은 물론 유상증자를 통해 배정받은 주식으로 상당한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 2월 한화솔루션 유상증자에 참여한 기존 주주들은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 가격은 주당 4만2850원. 4만4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현재 주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당시 한화솔루션은 친환경 사업부문이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이에 기존 주주가 아니었던 투자자들도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신주인수권을 사들이면서 한때 신주인수권 가격이 2만 원으로 두 배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만약 이때 신주인수권을 2만 원에 사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면 현재 30%가량 손실을 봤을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유상증자가 무조건 성공하는 투자가 아니다"면서 "오히려 업황이 안 좋을 때 유상증자를 통해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유상증자 성공 여부는 쉽게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eom@

'공매도 재개' 한 달, 충격은 없었다

금융위 "유의미한 주가변동 없어"

지난달 3일 재개된 공매도가 시장에 별다른 충격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 후 한 달 간(5월 3일~6월 2일) 코스피는 공매도 재개 직전 거래일인 지난 4월 30일 대비 2.4% 상승했고, 코스닥은 0.2% 하락하는 데 그쳤다.

금융위는 이 같은 움직임이 같은 기간 세계 증시와 유사한 것으로 기업 실적 개선, 개인 매수세 지속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나타냈다고 판단했다.

외국인이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9조 원을 순매도했지만, 미국 긴축 경계감에 따른 투자자들의 아시아 비중 축소, 지난달 중순까지 진행된 원화 약세 등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882억 원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인 작년 3월(6542억 원)보다 증가했다. 다만, 전체 거래대금이 같은 기간 2배 이상(13조7000억 원→25조4000억 원)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증가 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2.7%로 작년 1~3월(4.7%)보다 약 40% 감소했다. 금융위는 분석 기간 공매도와 주가 간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csjjin2002@

NH證 정보보호 국내 최고 인증

NH투자증권은 금융보안원으로부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ISMS-P(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통합 인증제도다. NH투자증권이 ISMS-P 인증을 획득하면서 금융사로서 트레이딩 등 전자 금융서비스에서 모든 금융거래 정보와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NH투자증권은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더불어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에서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손엄지 기자 eom@

관객 회복세인데 CGV 전환사채 청약률 30%도 안돼

참여 적어 일반공모 흥행 불투명
"높은 주가, 단기 투자심리 위축"
"목표 주가 상향" 증권사 엇갈려

주가가 회복세인 CJ CGV가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영구 전환사채(CB) 청약이 3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물량은 3·4일 이틀간 일반 공모를 통해 모집하는데, 흥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CJ CGV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이틀간 구주주 대상으로 진행한 총 3000억 원 규모의 제3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 전환사채의 청약률이 29.55%로 집계됐다. 886억 원 규모가 모집되면서, 나머지 2113억 원은 일반 공개 모집으로 전환됐다.

최근 영화관 관람객의 회복세와 경제 재가동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기존 주주들의 참여율을 높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산으로 빠르게 실적을 회복할 것이란 전망과 꾸준히 상승하는 주가와는 대조적이다. 지난달 19일 개봉한 '분노의 질주9'이 개봉 5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극장의 수요가 회복세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실적을 개선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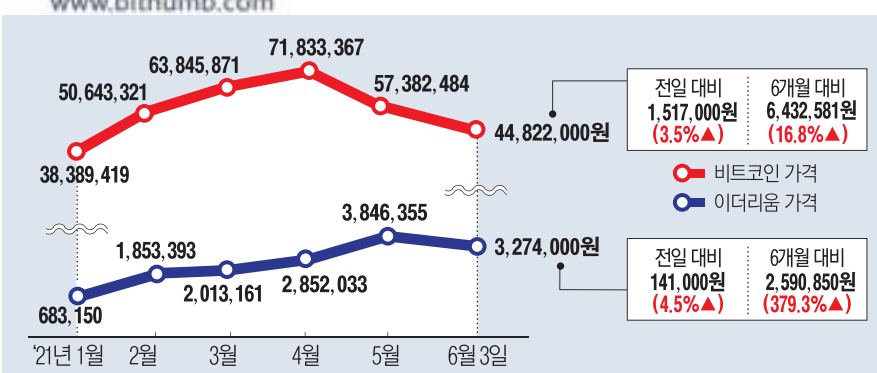
메리츠증권은 올해 연결기준 716억원의 영업적자를 전망했다. 또한 영화산업이 확실히 바닥을 다지긴 했지만, 너무 높게 상승한 주가가 단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봤다. 정지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재무구조 개선이 예상되며, 부채비율도 300%대로 회복될 것"이라며 "하지만 7월 8일부터 전환권 행사가 가능한 만큼 오버행 이슈(대량의 대기물량)로 인한 단기 투자 심리는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 연구원은 적정 주가를 2만8000원 제시하며 하방 압력을 예상했다. 이날 CJ CGV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찍고 장 중 3%(오전 10시 15분 기준) 넘게 빠졌다.

증권가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KB증권은 올해 영업손실이 유력한 상황에서 목표주가를 33.3% 상향한 3만6000원을 제시했다. 이동륜 KB증권 연구원은 "2022년, 2023년 영업이익은 각각 1379억 원, 1720억 원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할인현금흐름(DCF) 벨류에이션(평가)에서 2021년 이익의 기여도는 미미하기 때문"이라며 "2022년 이후 이익의 상향 조정은 하반기 이후 할리우드 대작 개봉으로 수요 회복 가시성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우람 기자 hura@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21년 6월 3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826,000	15,000 (1.8%▲)	이오스	7,460	70 (0.9%▲)
리플	1,198	9 (0.8%▲)	트론	92	3 (-)
라이트코인	221,200	4,900 (2.3%▲)	스텔라루멘	492	8,800 (4.3%▲)
에이다	2,059	-19 (0.9%▼)	비트코인에스브이	214,500	490 (1.4%▲)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톱50 대장주' 오른 봉천동 아파트 비결은 '개발 호재'

신규 편입 6곳 살펴보니

개발 호재를 안은 아파트와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크게 오르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주' 아파트에도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대장주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비싸면서 주변 집값까지 선도하는 단지를 일컫는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KB 선도아파트 50'(이하 선도아파트 50) 리스트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드림타운', 서대문구 북가좌동 'DMC래미안e편한세상',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온',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역 포레스티아', 부산 '삼익비치'·'더샵 센텀파크' 등 6곳이 새로 편입됐다.

KB부동산은 매년 초 시가 총액(단지 내 전체 세대 집값 총합) 전국 상위 50개 단지를 선정해 선도아파트 50을 발표한다. KB부동산은 이들 50개 단지의 시가 총액 변동률을 지수화해 매달 'KB 선도아파트 50지수'를 공개한다. 대장주 아파트값의 움직임에 따라 주변 시세도 바뀌는 만큼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시장 가격 변화 추이를 그만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셈이다.

◇재건축·교통망 호재 기대감 = 올해 선도아파트 50에 신규 편입한 아파트 단지 중 단연 눈에 띄는 곳은 관악드림타운이다. 2003년 지어진 관악드림타운은 3544가구의 대단지로, 관악구에서 처음으로 선도아파트 50에 편입했다.

관악드림타운가 대한민국 대장주 단지에 이름을 올린 건 경전철 서부선 건설과 봉천동 재개발 호재 등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봉천동 H공인 관계자는 "관악드림타운은 2028년 개통 예정인 서부선 호재와 주거 여건 개선 기대감으로 몸값이 많이 뛰었다"며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형은 매매값이 1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데도 매입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드림타운'(위 사진)과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온' 견본주택 현장.

관악드림타운, 서부선·재개발 DMC래미안, 인프라 호재 반영 부산 수영삼익비치, 재건축 코앞

DMC래미안e편한세상은 329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2028년 개통 예정인 경전철 서부선, 9호선 강북횡단선 개통 호재를 안고 있다.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이 개통하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단지 바로 앞에는 서울시립도서관과 DMC롯데백화점이 2025년 들어서는 등 생활편의시설도 크게 확충될 전망이다. 이 아파트 전용 84㎡형은 올해 3월 13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최고 12억5000만 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넉 달 새 1억 원 올랐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는 재건축 호재를 안고 있는 대단지(총 3060가구)다. 1979년 준공된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최근 수영구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사업시행인가는 정비사업의 규모와 단지 배치 등을 확정하는 단계다. 재건축이 이뤄지면 12개 동 3200가구의 새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KB 선도아파트 50 신규 편입 단지

단지명

고덕 아르테온, 관악드림타운, DMC래미안e편한세상(이상 서울)산성역 포레스티아(경기), 삼익비치, 해운대 더샵 센텀파크(이상 부산)

선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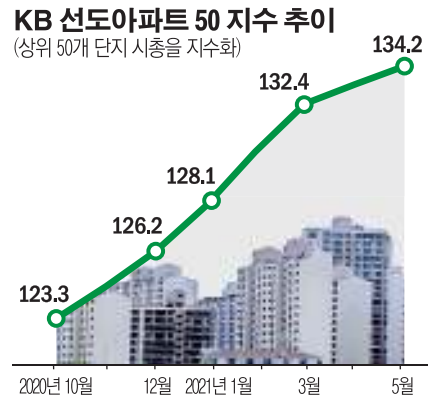
매년 12월 기준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 아파트

50곳 시총 규모

약 296조 원(전국 아파트 시총 5188조 원의 5.7%)

KB 선도아파트 50 지수 추이

(상위 50개 단지 시총을 지수화)



고덕·신성 등 신축단지도 속속 톱50 시가총액 올해 지속 상승 "똘똘한 한채 선호 더 뚜렷해져"

◇'집값 고공행진' 이끈 신축 단지 = 규모가 큰 신축 아파트 단지도 집값 상승 속에 선도아파트 50에 신규 편입됐다. 그 주인공은 고덕 아르테온과 산성역 포레스티아다. 고덕 아르테온은 지난해 2월 입주한 새 아파트로 총 4066가구 규모다. 고덕주공3단지를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컨소시엄으로 재건축했다. 전용 84㎡형이 올해 2월 18억6500만 원에 팔렸다. 현재 매매시세는 19억~19억5000만 원을 형성하고 있다. 산성역 포레스티아는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신흥주공아파트와 통보8차공원아파트를 재건축한 대단지(4089가구)로, 지난해 7월 완공됐다. 전용 84㎡형이 현재 15억 원을 호가한다.

이를 반영하듯 KB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올해 1월 128.1, 2월 130.4, 3월 132.4, 4월 133.2, 5월 134.2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이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가 강화되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더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으로 탈락한 서초·강남 단지들 = 올해 선도아파트 50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 '반포경남',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6차', 대구 '캐슬골드파크' 등 6곳은 빠졌다.

신반포3차와 반포경남은 재건축으로 인해 지난해 철거가 완료되면서 단지가 멸실됐다. 이들 아파트 단지는 2023년 '래미안 원베일리'로 새로 태어난다. 진주아파트도 재건축으로 인해 지난해 철거되면서 선도아파트 50 리스트에서 빠졌다.

신반포4차와 현대6차는 작은 단지지만 개별 가구 집값이 높아 지난해 선도아파트 50에 포함됐다. 하지만 대단지 아파트들이 지난해 많이 입주하고 기존의 다른 대단지 아파트값도 크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시총 규모에서 뒤져 탈락했다.

이재영 기자 ljy0403@

동부 수도권 '서른살' 노후 단지 2503가구 슬럼화 우려

이천·광주·여주·가평·양평 등 자연보호권역 묶여 재건축 난항 20년차로 넓히면 2만5884가구

수도권 외곽 자연보전권역(한강 수계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정비사업이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자연보전권역에 주택 건설을 제한하는 수도권 규제 탓이다. 자칫 원도심 슬럼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 5개 시·군(이천·광주·여주시, 가평·양평군) 내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준공 후 30년 이상)는 2019년 기준 2503가구다. 10년 내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준공 20~30년차 아파트도 2만5884가구에 이른다. 일부 읍·면·동이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된 남양주시와 안성시, 용인시를 포함하면 재건축이 필요한 자연보전권역 내 아파트는 더 늘어난다.

문제는 재건축 기한이 돼도 이들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주택 건설 등 택지사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에서 재건축 규제를 제한받을 수 있는 건 30가구 미만으로 재건축할 때 뿐이다. 사업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어렵다. 굳이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국토교통부 허락을 거쳐야 한다. 대지면적 10만㎡ 미만 사업은 국토부 협의를, 10만㎡ 이상 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재건축 인·허가권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서울 등 대도시보다 재건축이 더 어렵다는 뜻이다.

다른 지역에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도 자연보전권역은 예외다. 자연보전권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말은 협의라고 하지만 국토부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소규모 사업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며 "규제를 간소화한다는 소규모 정비사업도 똑같이 복잡하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편은 주민 몫이다. 경기 이천시 보은아파트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물도 새고 전기도 오락가락한다. 재건축이 어려운 상태에서 집이 낡아가니 아파트 반이 빈집"이라고 전했다. 1984년 입주를 시작한 95가구짜리 보은아파트는 그나마 올해 국토부에서 재건축 협의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주변 다른 노후 아파트들은 국토부 협의를 얻기 위해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접경지역에서도 선거 때마다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 나오는 이유다.

노후주택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 경기도의회에서도 주택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선 정비사업과 공공주택사업은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안을 주도한 안기권 경기도의원은 "도(道) 집행부에선 규제 완화에 호응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미적거린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규모 개발사업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3만㎡ 미만 도시개발사업은 수도권정비위 심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면제되기 때문에 자연보전권역 일부 지자체는 원도심 정비 대신 중소 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가뜩이나 자연보전권역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렇게 인구가 분산되면 원도심 쇠락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별장 등이 아닌 실제 주민 거주를 위한 것이라면 자연을 훼손하거나 기존보다 크게 규모를 늘리지 않는 한 허용을 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단지 40일간 거래 1건 '규제 역설'

'토지거래허가제' 이후 매물 뚝 되레 시세 더 올라 실효성 의문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압구정동·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의 주택 거래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제도를 시행한지 40여 일 동안 아파트 거래는 단 한 건 뿐이다. 그런데도 이들 지역 재건축 아파트값은 더 뛰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 4월 27일부터 서울 압구정동·목동·여의도동·성수동 4개 지역에서 매매거래가 신고된 계약은 단 한 건뿐이다.

첫 거래는 지난 5월 17일 목동에서 이뤄졌다. 신시가지 8단지 전용면적 54㎡형으로 12억3000만 원에 팔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직전 13억~13억1000만 원에 거래됐던 것을 감안하면 8000만 원 가량 떨어진 가격이다. 다만 이 거래는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의 매물을 시세보다 싸게 판 특수한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A공인 측은 "매물 자체를 찾기 어렵다"며 "신시가지 8단지 전용 54㎡형과 비슷한 9단지 매물 호가가 현재 14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비슷한 가격에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다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여의도에선 시범아파트 전용 79㎡형이 지난 4월 19억500만 원에 거래됐지만 현재 시세는 최고 24억 원에 달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거래만 감소시킬 뿐 가격 상승은 막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금호두산 리모델링 추진 금호동 정비사업 잰걸음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금호두산아파트가 리모델링 조합 설립 추진에 나섰다. 이 아파트는 1994년 준공된 대단지(1267가구)로 리모델링 후 190가구 늘어난 1457가구 규모로 바뀐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금호두산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리모델링 조합 설립 추진 동의서 접수를 시작했다. 추진위는 올해 초 정비·설계업체를 선정한 뒤 지난달 말부터 조합설립 동의서 접수를 받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접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은 주민이 조합설립에 호응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금호두산아파트는 총 16개 동 규모로 1994년 지어져 올해로 입주 27년 차를 맞았다. 전용면적 59㎡형부터 전용 124㎡형 대형평형까지 골고루 이뤄져 있다. 용적률은 249%, 건폐율은 21%다. 사업 완료 시 이 단지는 기존 16개 동(최고 15층) 1267가구 규모에서 190가구 늘어난 18개 동(최고 27층) 1457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리모델링사업이 본격화하면서 금호두산 매매가격도 오름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전용 84㎡형 매도호가(집주인이 팔기 위해 부르는 가격)는 최고 13억5000만 원이다. 이 평형의 직전 최고 실거래가는 1월 거래된 12억 원이다.

성동구 금호동 일대 다른 아파트들도 리모델링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 인근에 있는 금호벽산아파트는 지난해 말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고 현재 시공사 선정을 준비 중이다. 금호벽산아파트 바로 옆 응봉신동아아파트 역시 지난달 리모델링 조합 설립 절차를 마쳤다.

정용욱 기자 dragon@

이재용 부회장 재판 '프로젝트G' 작성자

"엘리엇 대응방안, 전체내용 정리한 것"

檢, 미전실이 삼성물산 통합반대 엘리엇 대응전략 모색 의심

"특정 이슈 제기할 수 있는 주주라고 생각해 여러 사람과 논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했던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에 대한 삼성 측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만든 작성자가 "지시한 주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지난 3차 공판기일에 이어 검찰이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으로 지목한 '프로젝트G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 삼성증권 직원 한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한 씨는 삼성증권에 근무할 당시 삼성미래전략실과 함께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 약화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자문했고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G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날 한 씨가 삼성증권 근무 당시 작성한 문건 중 엘리엇 대응 방안 등의 보고서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검찰은 당시 삼성물산 주식을 가진 엘리엇이 우호 주주들을 모으려고 하자 이 부회장이 직접 미전실 등과 대응 전략을 모색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엘리엇 대응 방안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주체가 누구냐", "누구에게 보고했고 누구와 논의했냐"를 재차 물었지만 한 씨는 대부분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다만 한 씨는 "엘리엇이라는 주주사가 굉장히 유명한 헤지펀드였고 이런 성격을 봤을 때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주주라고 생각해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 같다"면서 "특정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주주라고 생각해 여러 사람과 논의했고 그 중 미전실도 있었지만 작성을 요청한 주체는 생각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증인신문은 3차 공판기일에 마무리하지 못한 검찰의 주신문이 진행됐다. 오후에 변호인단이 반대신문을 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주신문이 길어지면서 절차가 지연됐다.

앞서 한 씨는 지난 공판에서 프로젝트G를 작성한 이유를 "대주주의 그룹 지분율을 높이려는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회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 합병 등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고 결론적으로는 합병으로 순환출자 구조가 단순화돼 경영권 안정화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

"선배님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현충일을 사흘 앞둔 3일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장병들이 소속 부대 선임 전우의 묘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보복운전' 아워홈 부회장 1심서 집유

보복 운전을 해 상대방 운전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친 혐의로 기소된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부(재판장 주진암 부장판사)는 3일 오후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는데도 무시했다"면서 "다시 도망하려다가 가로막는 피해자를 충격해 2차 사고를 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징역형의 실형보다 형사처벌의 엄중함을 일깨워주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A 씨의 차를 앞지른 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A 씨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한 구 부회장을 추격한 뒤에 차에서 내렸다.

구 부회장은 이때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A 씨의 배와 허리를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구 부회장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할 말이 있는지', '내일 주주총회인데 설명할 내용이 없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나경연 기자 contest@

'네이버 사옥 반사광 피해' 배상 길 열리나

대법 "생활방해 좁게 해석" 2심 다시

아파트 주민 손들어 줘

네이버 사옥 통유리의 태양 반사광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2심 재판을 다시 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성남시 A 아파트 주민 73명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아파트 주민들은 외벽 전체가 통유리로 된 네이버 본사 사옥에서 반사되는 태양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반사광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 앞이 잘 안 보이는 현상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주민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가구당 500만~1000만 원의 위자료와 129만~653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반면 2심은 "반사광을 직접 바라보지 않는 일상생활에서는 시각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커튼으로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태양 반사광 생활 방해를 시력 저하 등 건강상 피해, 주거 내 독서와 같은 시각 작업 방해로 좁게 봤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태양 직사광과 반사광에 의한 각 생활 방해 차이, 일조 방해와 태양 반사광 침해의 참을 한도 기준의 차이 등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실, 침실 등 주거 주요 공간에 하루 1~3시간 태양 반사광의 영향을 받는 등 유입 장소와 시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빛 반사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수준보다 440~2만9200배 밝은 빛 반사가 일어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태양 반사광의 예방,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가 허용될 경우 원고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제삼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해 헤아려야 한다"고 기준을 세웠다.

대법원 관계자는 "태양 반사광 방지청구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최초 판결"이라며 "양자 사이의 이익과 불이익 등 형평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생보사 또 패소

법원 "연금월액 부분공제, 약관에 명시 안 됐고 설명도 없어"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덜 준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피고 보험사가 패소한 것은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이어 세번째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덜 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즉시연금 공동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형주 변호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등 나머지 3개사를 상대로 현재 진행중인 10여건 소송에서 가입자의 승소 전망을 더욱 높이는 것"이라고 기대했다.

즉시연금 분쟁은 2017년 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덜 받은 연금액을 내놓으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곧바로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이 매달 지급되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만기형 가입자의 만기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월액 일부를 공제했는데 가입자들은 이러한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고 설명도 없었다며 당국에 민원을 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생보사들에게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해 소송전이 시작됐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 명, 8000억~1조 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5000명에 4300억 원으로 가장 많다. 미지급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에 대한 1심 판결은 이르면 8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 억원과 700 억원으로 파악됐다. 정수천 기자 int1000@

김오수 "檢 인사 논의 시간 더 필요"

박범계 "충분히, 아주 충분히 들어"

총장·장관 시각차 인사 늦춰질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조직개편안을 두고 약 2시간에 걸친 논의를 진행했다. 다만 김 총장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해 인사 발표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15층에서 검사장급 검사의 인사 방안과 검찰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협의했다.

김 총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시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견을 드리고 설명도 했지만 저로서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 등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 논의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충분히, 아주 충분히 자세히 들었다"고 말해 김 총장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조직개편안에 대한 일선의 우려와 개선 방안을 전달했다. 김 총장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렸다"며 "직제와 관련해서 장관께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더 설명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의 큰 틀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 두 사람의 시각차가 드러나면서 4일로 예상하던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용 기자 deep@

"보이스피싱 모르고 가담" 현금수령 업무 40대 무죄

채권추심 업무인 줄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40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전달하거나 지시받은 계좌에 입금하는 등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법무사 명의로 나온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 통화만으로 채용된 뒤 채권회수 업무라는 지시대로 업무를 해 보이스피싱과 관련될 수 있다는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은 "단순 업무 대가로 5일 동안 31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등 단기 고액 수당이 이례적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정부, 언론에서 홍보가 이뤄지고 사회 경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A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을 수거·취합하는 방식'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나에게 물었다, 아직도 詩 앞에 설레냐고

등단 40년, 안도현 시인

'한국의 어린 왕자'로 불리는 '연어'부터 연탄재 시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해준 '너에게 묻는다'까지 동심과 자연을 오가며 아름다운 언어의 세계를 보여줬던 안도현 시인. 올해 그는 환갑을 맞이했고, 1981년 시 '낙동강'으로 등단하여 시인으로 산 세월은 어언 40년이다. 여전히 시를 쓸 때면 떨린다는 시인은 지난 40년간의 세월을 정리하며 신간 '고백'으로 돌아왔다.

신간 '고백'의 서두에서 그는 이 책은 스무 살의 안도현에게 건네는 책이라고 말한다. 그는 스무 살의 자신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었던 걸까? 40년의 세월을 정리하며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썼는지 그에게 물었다.

"책을 통해 위로와 고백을 전하고 싶었다. 일단 스무 살의 나에게 위로를 건네고 싶었다. 젊을 때는 떨림과 설렘, 불안과 두려움이 공존하지 않나? 나 역시도 그랬다. 특히 시인의 꿈이 쉽지 않은 길임에도 묵묵히 정진했던 스무 살의 안도현을 늦게라도 위로하고 싶었다. 나이를 먹으면 설렘과 같은 감정에 무뎌지기 마련이다. 나 역시 그렇지만, 오직 시 앞에선 여전히 떨리고 설렌다. 이 책을 통해 스무 살의 내게 건네는 위로와 동시에 여전히 시 앞에서 떨리는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다."

이번 책은 산문집이지만 시가 연상될 만큼 짧고 강렬하다. 특이한 건 자연의 멋스러운 풍광을 담은 사진 위에 얹어진 글에 모두 제목이 없었다.

"이번 책은 독자들에게 '숨구멍'이 됐으면 좋겠다. 코로나19가 2년 차로 접어들면서 모두 심신이 지친 상태다. 그래서 진지하거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책은 쓰고 싶지 않았다. 읽으면서 숨을 한번 크게 내쉴 수 있도록 가볍고 짧은 글과 더불어 사진을 시원하게 배치했다. 제목을 달지 않은 건, 독자들이 스스로 제목을 붙여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다."

안식년과 같은 해직과 절필

40년의 세월을 정리하면서 묶은 이 책처럼, 그는 오랫동안 터전을 잡았던 전주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현재는 고향인 예천으로 돌아왔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새소리를 듣는 재미가 있다. 마당의 풀을 뽑거나, 비닐하우스의 채소에 물을 주고, 때때로 동네 산책을 다닌다. 지금이 삶에서 제일 행복하다."

그는 고향에 터전을 잡는 동시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계간지 '예천산천'을 만들고 있었다.

"예천산천은 현재 5호까지 나왔다. 잡지를 통해 예천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다. 낙동강의 지류인 내성천의 현재와 과거, 예천의 역사적 인물, 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을 거쳤던 할머니의 얘기 등과 같이 숨겨진 얘기를 통해 예천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고 싶다. 다양한 행사를 해보고 싶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요새는 우편 발송만 열심히 하고 있다. (웃음)"

신간 '고백' 스무 살의 나에게 건네는 위로
시는 책상 위에서 시작해 광장으로 나가
문학은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일이죠
살아온 길 돌아보고 낮은 곳을 살피게 돼
'역지사지' 교훈 심어준 시는 삶의 원동력

떨리는 마음으로 시를 쓰고, 소박한 시골 생활을 즐기는 그에게도 매번 좋은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교사 시절 해직과 복직을 반복했고, 최근에는 약 4년 동안 절필을 하기도 했다.

"내가 쓰는 시는 책상 위에서 시작해 광장으로 나갔다. 개인의 정서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향해 있었다. 개인적으로 문학은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높은 곳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위한 일은 무엇일까 늘 고민했다. 해직과 절필도 나의 이러한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일이다."

덧붙여 그는 이 시간을 "시련이 아니라 헤치고 나갈 과제였다"라고 정의했다.

"돌이켜 보면 해직과 절필은 일종의 안식년이자 성찰의 시간이었다. 많은 이로부터 사랑받았던 '연어'도 교사 해직 시절에 쓴 것이다. 아이들과 소통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서 책을 통해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은 것이 바로 '연어'였다. 절필하면서 쓰는 대신 부지런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또한 지나간 삶과 써온 시에 대해 돌아볼 수 있었다. 영영 시를 쓰지 못할까 봐 불안하기도 했지만, 감사하게도 또 쓰니까 써지더라. 그 결과가 절필을 마친 후 처음으로 지난해에 출간한 시집인지도 모르겠다."

삶의 원동력

40년간 독자의 심금을 울리는 시를 써온 시인에게 가장 잊을 수 없는 시는 무엇일까? 더불어 시인의 삶에서 시는 어떤 의미인지 물어봤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시를 아직 쓰지 못했다. 내 시를 아껴주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지금까지 써온 시를 다시 보면 부끄럽다. 다만 시를 쓰면서 여러 가지를 배웠다. 시를 쓰면서 삶을 반성했고,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볼 줄 알게 됐으며, '나는 나다'가 아닌 '나는 너다'와 같은 역지사지 자세로 살려고 노력했다. 아마 내 삶의 원동력은 '시'인지도 모른다."

끝으로 시인으로서의 목표와 좋은 시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밝혔다.

"돌이 쌓여 있네. 돌탑이구나. 이게 시가 아니다. 저 돌탑 안에서 바깥을 보면 어떨까? 저 돌은 어떤 할머니가 어떤 상황에서 지나다 올려놓은 걸까?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 영감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생각하고, 관찰하고, 그 너머를 상상할 때 좋은 시를 쓸 수 있다. 남다른 생각, 자기만의 언어, 새로운 발견. 이 삼박자가 골고루 갖춰진 게 좋은 시다. 앞으로 살면서 그런 시를 한번 써보고 싶다."

이날 우리는 바람 부는 윤동주 시인의 언덕 아래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제자들과 막걸리를 마시고 싶다는 바람을 말할 때의 그는 정겨운 선생님이었지만, 시 앞에서 떨림을 고백할 때는 스무 살의 안도현이었고, 자신의 시를 말할 때는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시인이었다. 다만 그 부끄러움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사랑의 고백이 미완의 관계를 완성하듯, 시를 향한 떨리고 부끄러운 마음은 부끄럽지 않은 시를 완성시킬지도 모른다. 삶의 부끄러움을 고백했으나 시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던 윤동주 시인처럼. 앞으로 그가 쓸 시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 본다.

글/금민수 기자 minsugold@
사진/브라보 마이 라이프

염색, 두피, 모발, 탈모케어 전문 헤어스파

옻 안타는 천연염색 & 두피센터
성공 창업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옻 안타는 천연염색 & 두피센터는

- 동성제약의 우수한 제품력과 지원전략을 갖춘 1인 소자본 창업 아이템입니다.
- 염색, 두피케어, 모발케어, 탈모케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지역 군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창업특전
- 無 가맹비, 無 로열티, 無교육비, 無인테리어 옵션으로 소자본 창업

파격지원
- 배너, 명함, 이미지 액자, 가격표 무상 제작
- 디자인 지원(간판 시안, POP, 홍보물 등)
- 오픈 홍보용 제품 및 견본품, 판촉물(쇼핑백, 포스터) 지원
- 교육 무상 지원(신규 및 보수교육), 시스템 관리, 오픈 지원

창업자격
- 미용 자격증 소지자 누구나

철원점

동탄장지점

www.hairspa.co.kr

창업문의 및 상담 02)6911-3868 옻 안타는 천연염색

‘체어맨 레터’ 통해 말하고 ‘비전 토크’ 귀 기울이고

임직원과 양방향 소통 늘리는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MZ세대와 대화·건강한 조직문화 위해 소통채널 새 단장
사내메시지 통해 “공정한 성과관리 위한 정합성 확보” 강조

구자균〈사진〉 LS일렉트릭이 임직원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공정함과 투명함을 강조하는 이른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3일 LS일렉트릭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회사의 소통 채널을 새로 단장했다. 먼저 구자균 회장이 임직원에게 보내는 ‘체어맨 레터(Chairman Letter)’를 만들었다. 회사 성장에 꼭 필요한, 과감하고 민첩한 변화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구 회장이 직접 이메일로 임직원과 수시 소통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임직원이 구 회장에게 제안하는 ’비전 토크(Vision Talk)‘다. 직접 소통을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임직원이 직접 구자균 회장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다.

회사 관계자는 “사내 웹메일을 통해 누구나 언제든지 직접 CEO에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자균 회장은 비전 토크에 올라온 내용 중 새롭고 의미 있는 의견들을 신중하게 검토해 ‘체어맨 레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피드백할 계획이다.

LS일렉트릭은 지난 4월 실시간 질의응답을 받는 ‘2021 HR제도 설명회’도 열며 소통을 넓히고 있다. 올해 변경된 HR제도에 대해 구성원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소통하며 알아가는 자리였으며, 회사 측은 성과관리 프로세스 개선사항 및 일정 등을 안내했다.

특히 조직별 팀장과 커뮤니케이터가 참석한 가운데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각자 자리에서 참여한 구성원으로부터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받고, 답변했다. 회사 측은 다음에도 이러한 HR 설명회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구자균 회장은 사내 메시지를 통해 “제대로 성과를 낸 사람이 진급하고, 성과에 걸맞은 보상을 받는 것이 올바르고 공정한 기업문화”라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성과관리와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우선 정합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합성 확보를 위해 분기마다 평가를 시행하고자 했었다”며 “우선 올해는 연 2회, 반기 단위 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영록 기자 syr@

오늘 거제서 ‘바다의 날’ 기념식
금탑훈장 변재철 제이에스엠 회장

제26회 ‘바다의 날’이 ‘살아있는 바다, 살고 싶은 어촌, 살아나는 경제’를 주제로 4일 경남 거제시 지세포해양공원에서 열린다. 바다의 날’(매년 5월 31일)은 국민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수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996년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해수부는 올해 바다의 날 기념식은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일정으로 인해 다소 늦춰졌다고 밝혔다.

이날 유공자 포상에서는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변재철 제이에스엠인터내셔날 회장을 비롯해 6명이 현장에서 상을 받고 이 외에 40명에게 정부포상도 별도로 전달될 예정이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건설신기술의 날’ 동탑훈장
김종수 롯데건설 상무 수상

김종수〈사진〉 롯데건설 상무가 ‘건설신기술의 날’을 맞아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19회 건설신기술의 날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2003년 제정된 건설신기술의 날은 건설신기술 개발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서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신기술개발자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산하기관에서 총 24명이 정부 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최고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건설신기술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김종수 롯데건설 상무가 수상했다. 이재영 기자 ljy0403@

하나금융 ‘청소년그루터기재단’ 출범

하나금융은 청소년 사회문제 해결 및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지원을 위한 전문 공익재단법인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3일 서울 마포구 홍대 앞에 위치한 ‘H-PULSE’에서 김정태 청소년그루터기재단 이사장(왼쪽 세 번째·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오찬석 재단 감사(첫 번째·전 한영회계법인 대표이사) 및 최금식(두 번째·선보공업 회장), 김홍국(네 번째부터·하림그룹 회장), 박상회(자살예방한국연맹 연맹장), 허우성(경희대학교 부설 비폭력연구소 소장) 재단 이사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현대차, 방탄소년단과 ‘수소에너지’ 다큐 만든다

예고편 발표…본편은 내일 공개

현대자동차가 오는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앞두고 방탄소년단(BTS)이 출연하는 ‘수소 에너지’ 다큐멘터리 예고편 영상〈사진〉을 3일 공개했다. 현대차는 지난해부터 방탄소년단과 함께 ‘Because of You’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미래 청정에너지 ‘수소’의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전파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예고편 영상은 ‘For tomorrow We won’t wait’가 주제다. 환경을 구하는 영웅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강조했다.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지구를 지키려는 실천과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전달했다.

한편 공개 예정인 본편 영상에서는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사회자가 되어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MZ 세대와의 대화를 통해 수소 에너지의 친환경성, 안전성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미래 에너지 ‘수소(H)’에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특별 제작한 것으로, 영상 속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환경을 구하는 영웅은 바로 ‘우리’라고 강조한다. 미래를 바꿀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수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소개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의 ‘수소 에너지’ 다큐멘터리 예고편 영상은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전 8시 현대차 월드와이드 유튜브 및 현대 라이프스타일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공개됐다. 본편은 세계 환경의 날인 오는 5일 낮 12시(한국시간) 유튜브 프리미어로 최초 공개 후 국내외 TV CF를 비롯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영될 예정이다. 특히 본편 영상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환경의 날’에 공개될 예정으로 그 의미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자동차는 클린 모빌리티에 대한 브랜드 비전을 전달하며 성장하고 있으며, 넥쏘 뿐만이 아닌 수소에너지로 지구를 지키기 위한 현대자동차의 노력을 MZ세대와 진정성 있게 소통하여 모두가 동참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수소기술의 글로벌 리더십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junior@

CJ대한통운 올해도 ‘희망의 빛’ 선물
에너지 부족국가에 태양광 랜턴 전달

CJ대한통운은 태양광 랜턴을 만들어 에너지 부족 국가에 전달하는 ‘세상을 밝히다’ 봉사활동에 임직원 800여 명이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태양광 랜턴 조립 봉사활동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진 가운데 전국 각 사업장에서 DIY 키트를 조립해 전달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CJ대한통운 본사 및 전국 사업장, 건설 부문 임직원 등 총 8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임직원들의 높은 관심으로 봉사활동 신청은 1시간 만에 마감됐다.

필리핀 세부의 전기 없는 가정 아동들이 CJ대한통운으로부터 받은 태양광 랜턴을 들고 있다.

지난해 7월 CJ대한통운과 CJ대한통운 건설 부문 임직원들이 조립한 태양광 랜턴 850개는 코로나19로 전달이 지연돼 올해 상반기에 필리핀 세부 담사이트와 이바바오 지역 전기가 없는 빈곤 가정에 전달됐다. 이주혜 기자 winjh@

한화 방산 3사 ‘호국보훈의 달’ 맞아 현충원 참배

㈜한화,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 등 한화 방산 계열사 3사는 자사 임직원들이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2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하는 합동 참배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앞줄 오른쪽부터 김승모 ㈜한화 대표이사, 김연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 손재일 한화디펜스 대표이사.

머스크 “반도체 부족 사태, 화장지 사재기와 비슷”

“기업들 초과 주문 공급난 악화”

일론 머스크〈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동차용 반도체 칩 부족 사태가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일어난 화장지 사재기 현상과 같다”고 했다고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머스크는 이날 트위터에서 “우리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공급망, 특히 마이크로컨트롤러(자동차용 비메모리 반도체) 칩에 있다”며 “이런 일(반도체 부족 사태)은 본적이 없다”고 한탄했다. 그는 “칩 부족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든(자동차) 회사들이 초과 주문을 하고 있다”며 “엄청난 규모로 일어나는 화장지 부족 현상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26일 소식통을 인용해 테슬라가 반도체 부품을 확보하기 위해 선구매라는 비정상적인 수단을 취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대만에서 생산되는 최신 칩을 주로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트위터 막히자 블로그 만든 트럼프, 한 달 만에 폐쇄

관리 번거롭고 방문자 줄어

트위터 계정이 폐쇄돼 블로그를 개설한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미국 대통령이 블로그마저 1달 만에 폐쇄했다. 트럼프 측은 별일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방문자가 급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로그 개설 29일 만에 문을 닫았다.

트럼프의 측근인 제이슨 밀러 선임 고문은 폐쇄 사실을 알리면서 “이 블로그는 우리가 지금 하는 넓은 작업을 보조하는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문제에 익숙한 한 관계자는 “블로그 관리가 번거롭고 트럼프 팀이 반길 만큼 많은 조회 수를 얻지 못했다”며 “(블로그가) 긍정적인 소식보다 부정적인 소식을 더 많이 끌어들였다”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인사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 △정책보좌관 변재영 ◇과장급 전보 △항만정책과장 남재헌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김명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장 정성기 △〃 선원해사안전과장 윤상린

◆특허청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박노익

◆신한라이프 〈임원 내정〉 ◇부사장 △이영종 △곽희필 △오동현 ◇전무 △이성태 △오민 △박경원 ◇상무 △구도현 △김범수 △정봉현 △허도일 △한상욱 △유희창 △이창현 △임상현 △김순기 △박종진 △김주홍 △이영재 △서동수 △배형철 △박재우 △주성환 △조형엽 △김성진가

◆IT조선 △디지털문화부장 이윤정 △영상팀장 이재범

부음

▲이희준 씨 별세, 백의지(라이나생명보험 계리/RM본부 전무) 씨 배우자상 = 3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5일, 02-3410-3151

▲이재숙 씨 별세, 한은정·상영·은영·정철(한국LPG산업협회 상무) 씨 모친상, 지영인·유근기(유한미용개발 대표) 씨 장모상 = 3일, 서울 메디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5일 오전 7시, 02-2601-7500

▲구귀임 씨 별세, 양동작·은경·동민(불광미디어 상무이사) 씨 모친상 = 3일, 안양장례식장 2호실, 발인 5일 오전 6시, 031-477-0092

▲김남석(전 성신여고 체육교사) 씨 별세, 김나윤·김강래 씨 부친상 = 2일, 한일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5일 오전 7시, 070-4888-1695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내수·고용회복 열쇠 될 서비스업 혁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한마디로 서비스업은 규제산업인 것이다. 이제 더는 서비스업을 내버려 둘 수 없다. 고용 없는 성장을 그대로 두면 사회의 양극화와 대립갈등은 더는 봉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할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은 4차 산업혁명도 단적으로 서비스의 혁신성장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의 원천은 제품에서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편승해야 우리도 진정한 혁신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종식이 가까워지면서 세계경제의 회복이 빨라지고 있다. 백신 접종을 일찍 시작한 미국과 유럽연합이 대대적으로 부양책을 시행함에 따라 우리 제조업의 주력 품목인 자동차, 휴대폰, 반도체의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수출 경기 덕분에 국내 제조기업의 실적은 대폭 개선되었으며, 종합주가지수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수출 호황에도 불구하고 내수와 고용은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수출과 내수의 괴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불균형에 기인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실물경제에서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36.3%(2015~2020년 평균)인 반면, 서비스업은 51.4%나 된다. 고용에 있어서 서비스업(67.3%)은 제조업(18.6%)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당연히 서비스업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내수와 고용이 회복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수출제조업이 선도하여 경제성장을 이뤄왔다. 제조업의 강점은 우리나라가 몇 차례의 경제위기를 벗어나는 데 크게 공헌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 봉착하는 것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1997년의 외환위기도 근본적인 원인이 서비스 분야의 낙후성에 있다. 당시 우리 정부에 의해 위기 진단을 의뢰받은 글로벌 컨설팅사인 맥킨지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약점으로 서비스업이 발달하지 않은 것을 꼽았다. 금융, 유통, 행정, 법률, 의료, 교육 등의 서비스가 효율적이지 않은 것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이런 서비스가 선진화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실상, 정치도 일종의 공공서비스이며 정치적 후진성이 경제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런 컨설팅 결과를 받아들여 역대 정부에서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0년째 표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 경제정책에서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다. 경제개발을 시작할 당시에 제조업은 생산, 서비스업은 소비라는 인식이 강했다. 서비스업이 활성화되면 자본과 노동이 생산에 투입되지 않고 낭비되는 것으로 간주했다. 당시 구호가 '저축은 미덕, 소비는 악덕'이었다.

권위주의적 개발경제에 대항해 펼쳐진 노동운동과 시민운동도 좌파적 유물론을 신봉하면서 서비스업을 깎아내리는 것에 힘을 보탰다. 유물론은 실체를 가진 재화만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믿는다. 사회주의에서 농민과 노동자가 기층계급이며, 서비스업은 농민과 노동자를 착취하여 부를 축적하는 기생산업으로 치부한다. 현재 금융업, 유통업, 임대업에 대한 편견도 그 뿌리는 유물론적 사고에 있다.

여기에 민주적 평등성을 추구하는 가치관도 한몫한다. 교육, 의료, 대중교통과 같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보편적 서비스는 평준화가 대세이며 비영리성이 강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택시, 청소, 수리, 배달 등의 생활서비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위한 생계형 서비스로 간주한다. 이와 같은 편의서비스는 소상공인의 생업 보호 차원에서 적합업종이나 생계형 업종으로 분류되어 대기업의 진입이 규제된다.

서비스업은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필요하거나 매우 불필요한 서비스 두 가지로 양분하여 이원화한다.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의료, 교육 등의 서비스는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므로 공익성이 우선시되며 영리성이 배제된다. 반대로, 경제적 사회적 필요성이 낮은 위락, 여가, 중개 등의 서비스는 엄격히 규제한다.

이처럼 복잡다단한 이유로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가 촘촘하고 인허가 요건이 까다롭다. 한마디로 서비스업은 규제산업인 것이다. 이제 더는 서비스업을 내버려 둘 수 없다. 고용 없는 성장을 그대로 두면 사회의 양극화와 대립갈등은 더는 봉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할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은 4차 산업혁명도 단적으로 서비스의 혁신성장을 의미한다. 자율주행차는 자동차가 제품에서 서비스로 변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부가가치의 원천은 제품에서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편승해야 우리도 진정한 혁신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

과거 50여 년을 제조업이 먹여 살렸다면 앞으로 50년은 서비스업이 먹여 살려야 한다. 서비스업의 혁신은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묘수이기 때문이다.

이상준의 일, 삶, 배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알고리즘 공정사회

통상 사람들은 인적자본 투자를 자신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쯤으로 생각한다. 인적자본 투자 행위는 교육 훈련뿐 아니라 결혼, 출산, 죽음, 보건, 의료에 대한 개인의 합리적 선택 행위를 의미한다. 자신의 생명 유지와 삶의 만족 그리고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일종의 생명 정치인 셈이다.

인적자본 투자는 단순히 이기적 경제 행위로만 볼 수도 없다. 오늘날 많은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기적 행위이다. 그러나 배우자와 자녀라는 미래의 상대방 인적자본 확충에 기여하지 못하고 생명 유지에도 악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이라면 이타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

인적자본 투자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는 개인의 투자 행위와 활용 또는 결과가 일대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공정성의 시비가 나타나는 이유이다.

공정성은 하나의 가치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만처럼 좋은 부모 만난 것도 개인의 소유권이니 그 자체를 인정해야 하며 사회적 정의란 없다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다. 반면에 존 롤스처럼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은 분배를 제공하는 것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말하는 그룹도 있다. 유도의 무제한급 시합처럼 모든 경쟁자가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경쟁하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체급별 경쟁과 핸디캡을 인정한 경쟁이 진정한 공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규범과 개인의 욕망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공정성 문제를 과거에는 사회, 문화, 도덕적 규범에서 해결하였다면 오늘날에는 법에 의해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당초 약속하고 합의된 것에서 벗어날 경우 예외 없는 법의 집행, 상대방을 가리지 않는 엄정한 집행에 의지하게 된다. 최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두 사람이 내건 슬로건이 '공정'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법과 시험, 규칙, 절차처럼 알고리즘화가 손쉬운 기계적, 형식적인 공정성 집행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상대적이고 가치적인 규범의 문제인 공정과 정의를 실정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를 떠나서 공정의 문제를 절차적인 집행의 문제로 단순화하여 알고리즘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알고리즘적 공정 집행이 당장 환호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외와 다양성이 얽혀 있는 세상에서는 언제든지 주장한 사람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성의 상징인 기회의 공정은 법률, 재원, 제도, 문화인식의 변혁이 동반되어야 가능하다. 장애인, 낙후된 지역, 저소득층 자녀, 소수자 그룹들처럼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사회적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정한 경쟁은 고사하고 일반인들보다 많은 배려와 지원을 받아야 공정한 기회의 출발선에 설 수 있다.

결과의 공정성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대표되지만 이 경우 어려운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롤스식의 공정-소득 재분배, 할당, 적극적 우대조치 등-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알고리즘 공정이 사회통합에 실패하게 되면 기회의 참여 배제, 과정의 무시, 분배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공정한 사회 건설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요즘 공정성 논의가 또 다른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것은 아닌가 싶다. 공정의 문제를 형식적, 기계적인 알고리즘 방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개인들의 생명 유지를 위한 다양한 요구를 조정할 수 있는 공간에 참여할 기회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참여가 정의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지아코모 카사노바 명언

"나는 여자들을 미치도록 사랑했다. 그러나 자유를 더 사랑했다."

에스파냐계 이탈리아의 문학가이자 호색가. 재치와 폭넓은 교양으로 외교관·재무관·스파이 등 여러 직업을 가진 그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두루 사귀었다. 추문(醜聞)으로 투옥돼 탈옥한 후 유럽 전역을 떠돌았다. 그의 저서 '회상록'은 18세기 유럽의 사회·풍속을 아는 데 귀중한 기록이다. 그는 오늘 세상을 떴다. 1725~1798.

☆ 고사성어 / 낙생어우(樂生於憂)

즐거움은 항상 고생하는 데서 나온다는 말. "편안함은 힘든 가운데 생겨나 항상 기쁠 수 있고 즐거움은 근심하는 가운데 생겨나 싫증이 없을 수 있다[樂生於憂而無厭]. 편안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육신의 근심과 몸의 힘듦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출전 명심보감(明心寶鑑) 정기(正己).

☆ 시사상식 / 프롭테크(proptech)

부동산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이 활용된다.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 신조어 / 이생집망

'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의 줄임말. 집값 상승과 매수 자금 부족에서 오는 박탈감에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자조적 신조어.

☆ 유머 / 할머니 비결

임종이 다가오자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비밀 상자를 가져와 열었다. 인형 몇 개와 꽤 많은 돈이 들어 있었다. 할머니가 힘겹게 말을 이어 갔다. "시집올 때 우리 엄니가 남편한테 화날 일 있으면 인형을 만드는데 몰두하라 하셨지." 인형이 몇 개 안 되자 할아버지는 할멈이 자신한테 만족하며 산 걸 생각하니 흐뭇해 "근데 돈은 뭐여?"라 물었다. 할머니 대답. "그 돈은 인형 만들어 판 돈이지."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저도 백신 맞으러 갑니다

김 지 영 정치경제부/jye@

2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 가장 먼저 한 일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이었다. 며칠 전까지 '8월에나 백신을 맞으려나'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다. 미국으로부터 공급받는 얀센 백신을 예비군과 민방위대원에게 접종한다는 소식을 접한 후, '이 기회에 빨리 맞고 끝내자'로 생각이 바뀌었다. 가장 가까운 날로 예약을 한 뒤 주변 지인에게 "얀센 접종 예약을 하라"고 알렸다.

사람들이 예약 인증샷을 보여주며 "질병관리청 출입하는 기자가 왜 이렇게 늦었냐"고 오히려 타박했다. 몇몇은 이미 아스트라제네카(AZ) 잔여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마친 상태였다.

불과 1~2개월 전과 사뭇 달라진 모습이었다. AZ 백신과 얀센 백신은 공급 초기 혈전증 논란으로 '줘도 안 맞는다'는 조롱거리 취급을 받았다. 지인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AZ 잔여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얀센 백신은 하루 만에 예약이 마감됐다. 백신이 달라진 건 없는데, 상황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답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주문하는 방역당국의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접종 초기 방역당국의 대응은 안전성·효과성 논란에 대한 해명과 예방접종을 당위성·필요성 강조에 치중됐다. 하지만 방역조치 실효성·형평성 논란, 화이자·모더나 백신 도입 지연, 일부 백신의 안전성 논란,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뒤늦은 접종 등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의 해명이나 당부는 먹혀들지 않았다.

최근에는 자발적인 접종이 늘고 있다.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인원기준 제외,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등 일종의 인센티브가 먹혀들고 있다. 이런 상황은 7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민의 인식·행위를 통제·개선하려는 것보단 국민 스스로 바꿀 유인을 주는 게 중요하다.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집합제한, 사적모임 금지 등 강제적 활동제한을 풀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에는 예외 없이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게 방법일 수 있다.

모든 걸 정부가 결정할 필요는 없다. 국민에게 선택을 맡기되, 선택의 결과만 명확히 제시하면 된다.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 편집인 김상철 | 주필 추창근 | 편집국장 김종훈

논설실 (02)799-2669
자본시장부 (02)799-2648
IT중소기업부 (02)799-2646
정치경제부 (02)799-2663
금융부 (02)799-2665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사회경제부 (02)799-2612
부동산부 (02)799-2637
디지털미디어부 (02)799-2643
국제경제부 (02)799-6741
산업부 (02)799-2644
사진영상팀 (02)799-6745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이슈&인물 악사손보, 장기보험 약진 비결은 김 용 란 장기사업본부장

"사업가형 센터장 체계·제휴사 확대 주효"

AXA손해보험의 성장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장기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용란 장기사업본부장.

2019년 합류, 1년 만에 본부장
센터장에 권한 줘 영업인력 확대
카드·홈쇼핑 제휴 6곳으로 늘려
그 바탕엔 소통·협력의 조직문화
지난해 유일하게 두자릿수 성장
他보험사 장기사업 고전과 대비
디지털·규제변화, 기회이자 위기
이젠 핀테크·플랫폼이 경쟁자
고객에 어떤 혜택 주느냐가 관건

국내 최초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을 선보이며 입지를 다진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이 마일리지(운전자) 상품과 암보험·치아보험 상품 등으로 대표되는 장기보험 사업에서도 눈에 띄게 약진하고 있다. 2007년 장기사업에 진출한 뒤 2018년 본격적으로 장기보험 비중을 늘려온 악사손보는 지난해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며 사업의 세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다른 보험사들이 장기사업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악사손보의 성장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장기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는 최연소 여성 임원인 김용란 악사손보 장기사업본부장이다. 40대 초반의 임원이 된 김 본부장은 "혼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회사의 문화, 즉, 상대를 배려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문화가 지금의 저 같은 사람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기사업 확장성에 기여 확신 들어

김 본부장은 메리츠화재, 라이나생명 등을 거쳐 2019년 악사손보 장기사업본부의 신채널개발 팀장으로 합류했다. 그는 악사손보에 들어온 이유를 "장기사업에 대한 확고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업이라 판단했고 유연한 문화 때문에 악사손보를 선택했다"면서 "장기사업은 데이터베이스 수급 비용, 상담원커미션, 콜센터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가 많이 집행되기에, 확장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은 비즈니스이지만, 최고경영자(CEO)가 장기사업의 확장성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 내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워크앤라이프(Work & Life)의 양립을 중요시 여기고 유연한 기업 문화를 갖춘 점도 매력적"이라고 덧붙였다.

입사 1년 만에 본부장 자리를 꿰찬 김 본부장은 승진 이후 가장 먼저 장기사업 확장을 위해 영업인력 확보 및 제휴사 확대에 나섰다. 그는 "악사손보는 종합보험사이나 자동차 TM·CM에 집중하고 있었다"면서 "장기사업 확장을 위해 자동차 고객에게 운전자 보험을 교차판매 노력을 하여 좋은 성과를 만들었으나, 다른 질병상품의 확장이나 영업 인력의 확장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사업가형 센터장 체계를 만들어 사업가형 센터장들이 자기 산하의 조직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해 영업 인력을 확대했고,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확보를 위하여 인포머셜 등과 같은 직영 데이터베이스(DB)뿐만 아니라 카드사 및 홈쇼핑사와의 제휴를 확장해 현재 제휴사 6곳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며 "보험업계의 장기사업 중에서 악사손보가 거의 유일하게 성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근속·신규영입 인력간 조화 강조

이 같은 사업 구조 변화와 동시에 김 본부장은 직원들에게는 소통과 협력, 업무적인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우리 회사는 장기 사업의 성장이 2019년 중반부터 본격화됐기에, 이를 위해 새로운 인력이 외부에서 많이 영입됐고, 본부 내에 장기 근속한 인력과 신규 경력 입사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충분한 소통과 상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오해가 커져 업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다른 배경을 가진 직원들끼리 충분한 논의와 소통의 필요성을 당부하였고, 지속적인 사업의 성장을 위하여 업무의 역량 강화, 사업의 다이내믹(dynamic)에 대한 높은 이해를 당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의 이 같은 주문은 사업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악사손보의 작년 일반장기보험은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31.2% 증가했고, 수익성 역시 47% 고속성장했다. 전체 사업에서 장기보험의 비중도 확대됐다. 장기사업의 비중은 작년 원수보험료 기준 12.93%를 기록하며, 전년 9.91%보다 3.02%포인트(p) 늘어나며 처음으로 10%대를 넘겼다. 유지율 역시 업계 평균 대비 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플랫폼 통한 보험상품 구매 대응해야

김 본부장은 "변화되고 있는 시장 환경에서 성장하는 비즈니스 모멘텀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사를 둘러싼 규제 및 디지털 기술의 변화로 장기사업의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우선 디지털 기술의 변화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금까지의 고객 세분화를 뛰어넘는 고객맞춤형 상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견된다"면서 "또한, 고객에 맞게 헬스케어 서비스 등이 부가되면서 보장을 위한 보험이 아닌 예방을 위한 보험사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된다면 보험사는 손해율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재무적인 혜택을 고객을 위한 투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며, 프로세스 측면에서 보험 상품 상담, 가입, 언더라이팅, 보험금 지급 절차 등이 자동화, AI 도입을 통하여 고객에게 더 빠르고 간편하게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새로운 기술을 등에 업고 등장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은 '위기'라고 진단했다. 김 본부장은 "지금까지 우리의 경쟁사는 타 '보험사'인데, 핀테크, 플랫폼 사업자들이 보험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의미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은 '예스(YES)'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제는 플랫폼을 통한 보험 상품 구매로 인하여 보험사의 네이밍밸류(Naming value)가 약해질 수 있으며, 결국 보험사가 고객에게 어떤 부가혜택을 줄 수 있는가, 어떻게 라이프타임 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가 중요 전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또한 고객의 성향에 따른 지금까지 보험사가 집중하였던 상품의 형태도 다양하게 변경돼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김 본부장 역시 악사손보가 라이프타임 파트너가 되기 위한 활동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완전 판매율 관리, 유지율 관리 마지막으로는 라이프타임 파트너가 되기 위한 예방 활동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서 "이 모든 고민이 잘 해결돼 장기 사업 시장에서 탄탄한 보험사로서 악사가 자리잡는 것이 앞으로의 업무적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영업 판매채널 경계 느슨해져

김 본부장은 최근 보험 영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영업의 판매 채널의 경계를 약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규제 완화로) 판매 채널의 차이가 과거보다 모호해질 수 있어 보인다"면서 "대면 채널도 녹취로 대체가 가능할 수 있고, TM과 모바일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채널의 성장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악사손보의 경우, 아직 가시화된 상태는 아니지만 하이브리드 채널의 테스트 등을 검토해 보고 있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 음성봇 시스템을 올 해 하반기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보험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 추세에 대해 "보험업이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에 대하여 개별적인 보험사뿐 아니라 업계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상품 개발뿐 아니라, 팬데믹, 기후 변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험 상품의 개발에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사설

정부-재계 잇단 회동, 규제 혁파 전환점 돼야

정부와 재계가 잇따른 만남으로 접점 넓히기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4대 그룹 총수와 오찬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경제 5단체 회장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 최태원 대한상의·손경식 한국경총·구자열 한국무역협회·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참석해 여러 현안에 대한 애로와 의견을 전달했다. 4일에는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 사장단과 회동한다.

정부가 재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재계의 당면한 어려움이 해소되고, 기업활력을 떨어뜨리는 족쇄들이 풀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문 대통령은 4대 그룹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기업의 힘이 아주 컸고, 앞으로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재계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에 대해서도 "고충을 이해한다. 공감하는 국민도 많다"고 언급했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재계에 대한 우호적 신호다.

재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 측과 직접 소통해 공감대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한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현실을 외면하고 밀어붙여온 반(反)기업 정책기조와 규제 일변도의 국회 입법은 기업들을 끝없이 벼랑으로 내몰고 경제활력을 쇠퇴시켰다. 성장잠재력 또한 형편없이 떨어졌다.

정부가 뒤늦게 기업들과의 소통에 나서고 있지만 진정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김 총리와 경제 5단체장의 만남에서는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의 혁파를 비롯한 구체적 현안들이 건의됐다. 그동안 재계가 수도 없이 절박하게 호소해온 사안들이다. '기업규제 3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과 투자 걸림돌 해소, 경쟁력 유지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 노동시장 개혁 등이 핵심 과제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또한 재계가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 대표기업의 경영 리더십과 미래산업 투자가 흔들려 경제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대통령 결단에 달린 문제이고 보면, 사면이든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가석방이든 경제 활성화와 국익 차원에서 전향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정부와 재계의 만남이 일과성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나아가 반기업 정서를 타파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기업가정신과 투자 의욕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경제성장의 기반을 확고히 하면서 일자리를 더많이 만들어내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어느 때보다 국제 정세와 경제구조의 변화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와 재계가 힘을 모아 위기를 헤쳐나가는 협력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한 컷

방역수칙 무색한 도보흡연

한 남성이 흡연을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는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흡연이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며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뿌연 담배연기가 오가는 시민들 사이로 퍼져나간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이 무색해지는 장면이다. 고이란 기자 photoreran@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K텔레콤의 AI 서비스가 새로운 생활을 만듭니다

우리 가족을 알아보고 지켜주는 집과
당신의 목소리 하나로 시작되는 서비스

누군가에겐 자신을 먼저 챙겨주는 가족이자
누군가에겐 다정한 친구이고 말벗

내 취향을 기억하고 추천해 주는 플랫폼부터
필요로 하기 전에 알아서 돕는 기술까지

모든 순간 AI가 함께 하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더 나은 모두의 생활을 위해
SK텔레콤은 당신 가까이에서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NUGU meetUs wavve FLO ADT캡스 11번가 map world tv